11월17일 Market Index
코스피 4968.48 (-132.02)
코스닥 650.06 (-15.59)
금리(국고채 3년) 3.725 (-0.018)
환율(원-달러) 1338.2 (+2.5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장사도 폐업도 막막한 소상공인
"선제적 경영진단·정책지원 필요"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실태조사
평균 폐업비용 1386만원 달해
2명 중 1명은 대출상환 등 지연
연말 앞두고 소비둔화까지 우려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돼 문을 닫겠다고 마음 먹어도 비용과 기간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빚은 평균 8192만원, 폐업 비용은 평균 1386만원에 달했다.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관련기사 3면〉

국내외 경제 불안, 계속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중심의 물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씀씀이도 위축되고 있다. 연말 특수는 꿈도 못꾸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수령(1116명)했거나 공제금을 받은 후 다시 창업해 노란우산에 가입한 재창업자(633명) 등 총 1749명을 대상으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를 조사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이같은 고충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1년이 훌쩍 넘는 평균 16.7개월에 이르고 있다. 2명 중 1명은 폐업이 늦춰지면서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더 쓴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 지연'(경험자 318명) 이유는 점포 인수자를 찾지 못했거나(34.9%) 대출금 상환 부담(21.7%)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3000만원 이상 더 썼다'는 곳도 24.8%에 달했다.

문을 닫고서도 절반 가량은 생계 때문에 다시 창업에 뛰어들었다. 재창업자의 62.1%는 업종도 전과 다르지 않았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20개 은행 대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폐업 후 6개월 이상 지난 자영업자 27만5981명의 은행 대출잔액은 21조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 13조7108억원에서 무려 54%인 7조4092억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까지 포함돼 있다.

대출잔액도 많지만 문제는 자영업자 연체율(폐업 1년 미만 기준)이 2021년 말 2.27%에서 올해 6월 말엔 10.84%까지 늘어나는 등 대출의 질도 빠르게 나빠졌다는 점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최근 내놓은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6조3542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1.5%(2조8184억원)나 늘었다.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7.3% 증가한 것으로, 특히 은행권(3.9%)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비은행권(8.1%)에서 연체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6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p 올릴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최대 소비시기인 연말을 앞두고 소비 둔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민간소비증감률은 -0.2%를 기록하며 2022년 4분기 이후 15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정책본부장은 "사후약방문보단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기 전에 경영진단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폐업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정책도 기존의 수 많은 대책 중 필요한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성숙 "수능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국무총리〉

시험장 인력 추가 배치… 감독 강화
입학취소·최대 10년 응시 제한 제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 옷에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까지 점검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최대 10년에 입학 취소까지 '무관용'을 내걸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 국무총리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시험장에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켜져 있으면 알림이 울리도록 해 미제출 기기를 확인하려는 조치다.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보관한다.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도록 하고,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해 미제출 기기와 통신 관련 이상 징후를 살핀다.

안경과 복장 점검도 강화한다. 수험생은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받는다.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양 소매를 걷은 상태에서 옷깃과 단추 등도 점검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소지품을 다시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 확인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들은 스마트기기와 미제출 휴대전화, 통신 관련 이상 징후 등을 점검한다.

부정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1년인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오천피 붕괴… 'AI투자 불안·외인이탈' 급랭

엔비디아 사태·글로벌 긴축기조 영향
아시아 증시 흔들… 대만 등 일제 하락

코스피가 9개월 만에 '4천피'(코스피 지수 4000)로 주저앉았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스캔들이 불러온 인공지능(AI) 투자 불안감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겹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관련기사 4면〉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59% 내린 4968.4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종가 기준 4000선대로 내려간 건 지난 2월 2일(4949.67)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1조4460억원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5440억원, 4220억원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도 4076조8390억원까지 줄며 4000조원선을 '턱걸이'했다.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증시의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3%, 1.96% 내린 19만300원과 109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주가 줄줄이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AI 반도체 1위 기업인 엔비디아는 젠슨 황 전 CEO의 불륜 및 사임 여파가 이어지며 4.12% 하락했고, 마이크론 7.62%, AMD 5.58%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주요 AI 기업과 진행해온 이른바 '순환 거래' 구조 아래에서 엔비디아의 위기가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미국 증시에서 앤트로픽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유동성(외국인 매도) 측면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부담이다.

한편 아시아 증시도 흔들렸다. 이날 일본(-1.34%), 대만(-4.51%)이 급락했고 중국, 홍콩도 일제히 하락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IMF "韓 경제성장률 4%대 근접할 것"

한 달 만에 성장률 예측치 0.6%p 상향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성장률 예측치를 불과 한 달 만에 0.6%포인트(p)나 상향 조정했다.

IMF 미션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의 3.3%에서 3.9%로 크게 높였다. 첨단기술산업 수출의 급증,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 등을 근거로 들었다.

내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내년 전망치 역시 종전의 2.8%에서 3.3%로 올려 잡았다. 첨단기술산업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확산되고,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진단한 데 따른 상향이다.

IMF는 "글로벌 AI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며 한국 경제에 이례적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는 탄탄한 기업 실적 및 재정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메트로 한줄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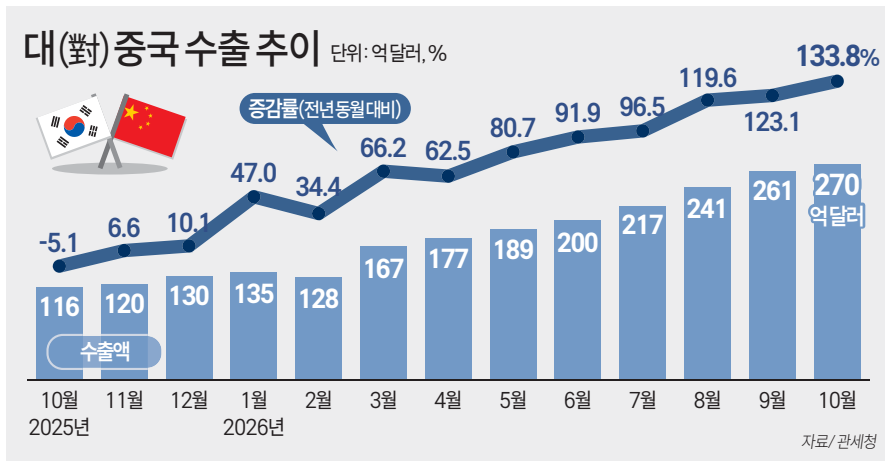
▲ 與 김문수 "최민희, 제명 포함 중징계해야…가장 큰 해당행위"
▲ 이 대통령 "김대중·주룽지·오부치 한중일 협력, 복합위기 시대 배워야 할 교범"
▲ 민주당, 오는 19일 본회의 추진…"민주유공자법 반드시 통과"
▲ 권칠승 "의무공개매수제 균형 찾을 것…주주보호·M&A 활성화 함께 이룰 방안 마련"



▲ 감사원 "항만 위험물 7.3% 잘못 보관해 폭발 위험…관리 허점"
▲ 외교2차관, 카타르 국무장관과 면담…韓 메가 프로젝트 설명
/사진 뉴시스

韓, 10월 對中 수출 270억달러… 반도체 중심 2배 이상 증가

고성능 메모리 중심 수요 확대
中 첨단산업-부동산 투자 격차
상품 소비회복은 여전히 더뎌



반도체가 한국의 대(對)중 수출을 두 배 넘게 끌어 올렸지만 중국의 상품 소비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 고성능 메모리 수요와 가격 강세가 수출액을 밀어올리는 동안 중국 내부에서는 첨단산업 투자와 가계 소비·부동산 경기 사이의 간극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수출입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은 270억 11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3.8% 증가했다. 한국의 10월 수출에는 조업일수가 지난해 20일에서 올해 22일로 늘어난 영향도 반영됐다.

같은 달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0.4%로 9월의 1.1%보다 낮아졌다. 상품 판매와 외식 매출을 합친 지표로, 한국의 대중 수출 급증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 수출액 키운 반도체

대중 수출 호조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잠정 집계에서 10월 중국 본토행 ICT 수출은 211억5000만달러였다. 이 가운데 반도체는 188억6000만달러로 89.2%를 차지했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26.5% 늘었다.

정부는 AI 산업 성장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와 D램 중심의 초과수요, 메모리 가격 강세를 반도체 수출 증가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같은 자료에 제시된 8Gb D램 단가는 10월 27.5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92.9% 올랐다. 반도체 수출액이 기업의 수요와 가격 변화에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중간재 교역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 등 중간재는 중국 기업의 생산에 투입돼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수출 목적지가 중국이라고 해서 그 수요가 모두 중국 가계의 상품 구매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품목별 수출과 현지 판매의 움직임도 달랐다. 한국의 대중 디스플레이 수출은 18.3%, 휴대폰 수출은 부분품을 포함해 3.9% 감소했다. 반면 중국 내 일정 규모 이상 유통업체의 통신기기 소매판매는 6.5% 늘었다. 통계의 품목 범위는 다르지만, 한국산 수출의 등락을 중국 소비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 반도체·정보서비스 투자와 부동산의 간극

중국 안에서도 투자 분야별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했지만 집적회로 제조업 투자는 13.8% 증가했다. AI 등 신산업과 밀접한 정보서비스업 투자도 20.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투자는 21.6% 감소했다. 첨단산업과 부동산으로 향하는 투자 흐름이 갈린 것.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강조하면서도 국내의 "공급 강세·수요 약세가 여전히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 서비스 소비는 상대적 선방

소비 내부에서는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1~10월 서비스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 상품 소매판매 증가율인 0.9%를 웃돌았다. 10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도 2.5% 증가했다.

국가통계국은 중추절 시점 이동과 일부 내구재 판매 증가세 둔화를 10월 상품 판매 증가율이 낮아진 배경으로 꼽았다. 낮은 소매판매 증가율만으로 중국 소비 전체가 정체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소비 회복의 제약은 남아 있다. 린송 ING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신뢰가 계속 약한 것이 소비 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도체가 이끄는 수출 호조를 중국 내수 전반의 회복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국 기업의 대중 사업 여건도 반도체 수요·가격과 현지 가계의 소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푸 대변인은 "소비 확대를 위해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주민의 소비 능력과 의향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삼성·SK, 내년 성장 전망 불확실성 커져

D램 가격 상승세 둔화 등 제약 예상
차세대 제품 양산·수익성 확보 과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현금성 자산 329조원을 쌓았지만 내년 성장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증산을 통한 매출 확대와 수익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회사의 '현금·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 상품' 규모는 총 329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약 193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 증가에도 내년에는 D램 가격 상승세 둔화로 실적 성장에 제약이 예상된다. 전일 하나증권은 D램 평균판매가격 상승률이 삼성전자는 올해 282%에서 내년 15%로, SK하이닉스는 191%에서 3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글로벌 AI 반도체 투자 전망까지 하향 조정되면서 향후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미국 반도체 전문 분석기관 세미애널리시스(SemiAnalysis)는 지난 13일 2027년 글로벌 AI 가속기 투자 전망치를 기존 7700억달러(약 1031조원)에서 6270억달러(약 839조원)로 19% 낮췄다. 2029년 전망치도 41% 하향했다.

AI 가속기 투자 전망이 낮아지면서 HBM 출하량 전망도 조정됐다. 2028년 글로벌 출하량 예상치는 9.0엑사바이트(EB)에서 6.4EB로 30% 축소됐다. AI 기업들의 매출 증가세 둔화와 데이터센터 자금 조달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부족 완화에 따른 HBM 가격 하락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중장기 전망 하향에도 내년 AI 가속기 투자액은 올해보다 약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러한 수요 확대에 대응해 생산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내년 HBM 공급 물량의 판매를 완료하고 차세대 HBM4E 양산을 추진 중이다. 충남 아산 온양사업장에는 총 46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HBM 패키징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조원을 투입하는 신규 생산시설은 2028년 6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청주 M15X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는 주요 고객사 14곳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2027년부터 2년간 전체 생산능력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생산능력 확대와 함께 공급계약의 가격 조건도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다. 삼성전자는 내년 HBM 공급 물량에 대해 목표 수준의 가격으로 협상을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고객사와 합의한 가격 범위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계약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내년 공급 물량 확보에도 2028년 이후에는 AI 투자 둔화와 HBM 가격 하락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증산 물량의 판매 규모와 가격이 중장기 수익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HBM 수요가 견조하겠지만 2028년 이후에는 AI 투자 규모와 공급 여건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신규 생산시설 가동에 따른 공급 확대 속도와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엔비디아, 공급망 운영 전략 공개

제품출하 단축… 안정적 생산·납품 부각

엔비디아가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 퇴진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 협력사와 구축한 인공지능(AI) 인프라 공급 역량을 강조했다. 경영진 교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납품을 뒷받침할 기반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엔비디아 데브 쇼퀴스트 운영 부문 수석부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급망 운영 전략을 공개했다. 쇼퀴스트 수석 부사장은 "공급망 추적 체계를 통해 수급 상황에 따라 TSMC의 칩 출하부터 폭스콘·위스트론의 완제품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을 5주에서 2주로 줄였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장별 생산 실적에 따른 물량 배정이다. 쇼퀴스트 부사장은 "매주 각 공장의 생산 성과를 확인하고 수율이나 운영 효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칩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반도체 칩의 식별번호부터 고객 송장까지 모든 칩을 추적하며 공급업체에도 이 체계를 지원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망 전략 공개는 콜렛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CEO를 맡은 직후 이뤄졌다. 기존 제조 네트워크가 당장의 납품을 뒷받침한다면, 협력사 투자와 장기 구매 약정은 차세대 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기반이다. 새 경영진의 투자 기조가 향후 공급망 확장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K-기업, 'CES 2027' 전략 윤곽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 기술 대전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 노하우 집약
LG전자, 안전성·상호작용 차별화
현대차그룹, '실용주의 물리력' 강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훈련하는 모습. /보스턴다이나믹스

매년 IT·전자·자동차 시장의 트랜드를 엿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7'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전략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대표 산업군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그룹이 휴머노미드 로봇 기술 경쟁은 단순 외형 모방을 넘어 각 사의 주력 사업 역량을 이식한 '시그니처 기술' 대결로 확전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성패가 범용 스펙이 아닌 '현장 맞춤형 독점 기술'에 달렸다고 보고, 각각 ▲초인적 기동성(현대차) ▲초정밀 조작(삼성) ▲공간 안전·교감(LG)을 전면에 내세워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정밀 제조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 같은 손'과 '실전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의 휴머노이드는 현대차와 달리 사람과 동일한 다섯 손가락(5지)을 구현했다. 인간의 힘줄처럼 케이블을 당겨 구동하는 텐던(Tendon) 방식과 직구동 기술을 결합해 얇은 카드를 집거나 정밀 전자부품을 조립할 수준의 섬세한 조작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 세계 100여 개 자체 생산라인을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현장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독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주변 환경을 예측하는 '월드 모델'을 결합해 기술 장벽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 공개할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산업 현장을 넘어 가정과 상업 공간에서 인간과 공존하는 '안전성과 상호작용(HRI)'을 핵심 무기로 내세웠다. LG전자는 휴머노이드 '클로이드' 등을 앞세워 사람과 작업하는 환경에서의 충돌 방지 및 안전 인증 표준 개발을 주도하며 LG 데이터팩토리를 통한 생활·공정 데이터 축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부품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로봇 얼굴에 자연스러운 표정과 시선 추적을 구현하는 전용 디스플레이 등 인간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차별화 포인트로 삼았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를 통해 인간 신체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용주의 물리력'을 시그니처로 삼았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대표 모델인 전동식 '아틀라스'는 목·허리·팔다리 등 56개 자유도(DoF) 관절이 360도 회전하도록 설계됐다. 몸을 돌릴 필요 없이 관절만 회전해 뒤쪽 부품을 집어 올릴 수 있어 완성차 조립 라인의 동선과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손 역시 내구성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한 '4지(4손가락)' 구조를 채택했으며, 최대 50kg의 고하중 부품을 들고 균형을 잡는 전신 제어 기술로 중후장대 제조 현장에 최적화했다. 특히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지난 9일 아틀라스에 발 대신 휠을 장착하고 다양한 고난도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렸다. /양성운 기자 ysw@

“월급 받아도 빚 갚기 버겁다”… 개인회생 역대 최대 전망

9월까지 12만건 넘어 10.6% 증가
지난해 연간 신청의 83.6% 달해
신청자 75.5% 급여소득자로 집계
절반 이상 월 250만원 이하 소득



고금리가 지속되는 데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다. /Chat GPT 이미지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 상당수가 급여소득자인 데다 절반 이상은 월소득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비 부담과 소득 정체가 채무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2만47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2689건)보다 10.6%(1만2014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인 14만9147건의 83.6%에 달하는 규모다. 남은 3개월 동안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파산 신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9월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3만2844건으로 전년 동기(3만832건) 대비 6.5%(2012건) 늘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확대와 소득 정체, 채무 상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했던 취약차주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적 채무조정 절차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75.5%는 급여소득자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55.8%는 월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소득 중위값은 약 240만원으로 2024년(약 230만원)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 7.34%를 밑도는 수준이다. 소득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가운데 생계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 여력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생활비와 소득 문제에 집중됐다. 개인파산의 주요 경제적 파탄 원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증가가 4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5.7%로 뒤를 이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30대 A씨는 건강 문제로 직장을 자주 옮기면서 소득이 불안정해졌고,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급여가 낮고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와 생계비는 계속 늘어났다”며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했지만 이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1375’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가 복잡한 지원제도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상담과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복위 관계자는 “1375로 전화하면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은 물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전파 탐지부터 통신 차단까지”…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실효성 논란

KCA, 전파 탐지기 개발 일정 단축
재밍 기술은 법적 제약에 적용 난항
와이파이 차단도 우회 접속에 한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통신망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전파 탐지기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전파 탐지기 개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현장 실증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파 탐지기는 시험장 안에서 송출되는 무선 신호를 잡아내 부정행위에 쓰인 기기를 찾아내는 장비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대응책으로 거론됐다. 다만 오는 19일 수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 자체를 끊는 ‘재밍’ 기술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재밍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 방해 전파를 송출해 통신을 교란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하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는 물론 LTE·5G 등 셀룰러 통신까지 차단할 수 있다. 외부 기기와 연결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로를 제한하는 셈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재밍 기술을 부정행위 방지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기간 전국 시험장에서 무선 신호 차단기를 가동하고 드론으로 불법 전파를 탐지한다. 인도 국가시험청도 올해 의대 입학시험에서 5G 재밍 장비를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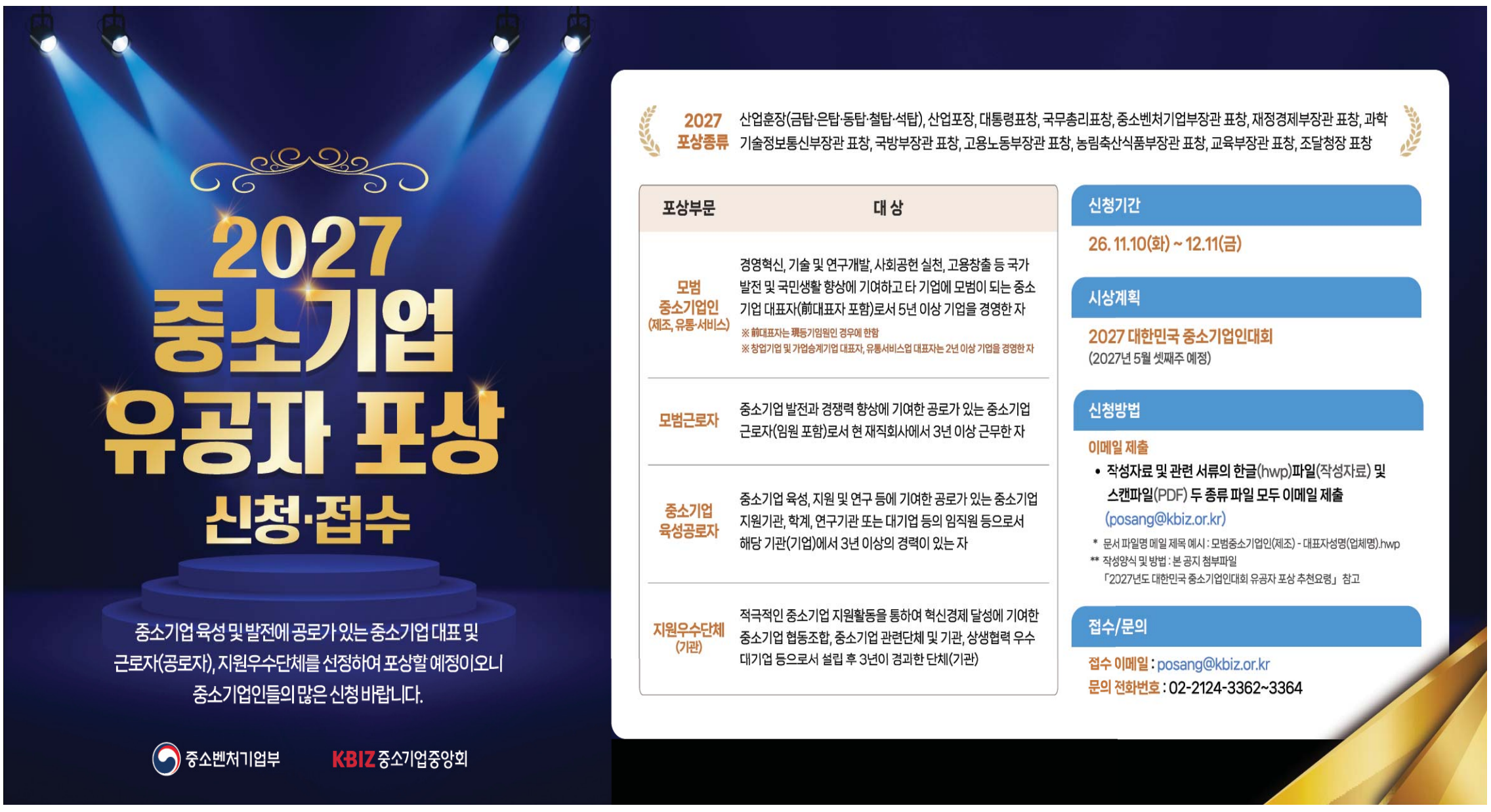
반면 국내에서는 재밍 기술을 민간 시험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전파법 29조에 따라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군·방산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을 올해 수능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동통신망을 차단하는 방안 또한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시험장 주변 기지국의 통신을 제한하면 수험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상인,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기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시험장 주변 생활 인프라와 통신 서비스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업계에 시험장 반경 50m 이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역의 와이파이 신호를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LTE·5G 등 이동통신망을 통한 우회 접속까지 막기는 어려워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지국을 통한 통신이 가능한 상황에서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험장 주변 일반 이용자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



9개월 전으로 돌아간 코스피… IB는 여전히 "1만피 가능"

9114 포인트 찍고 5개월 새 반토막
엔비디아 악재에 반도체 직격탄
앤트로픽 상장 등 外人 이탈 가속
국내 증권가, 하단 제시 '신중론'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IB '낙관'
반도체 이익·수급 회복이 관건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32.02포인트(2.59%) 내린 4968.48에 마감한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15.59포인트(2.34%) 내린 650.06에 장을 마쳤다. /뉴시스

"주가지수 5000포인트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6000~7000 될 수 있는데 소심하게 얘기한 것."(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코스피 1만 임박' 등은 K 황금시대의 징표."(6월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현 민주당 대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잇따라 제시한 코스피 '목표치'에 불나방처럼 주식으로 달려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지난 6월 9114.55포인트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는 불과 다섯 달 만에 '4천피'(코스피 4000)까지 추락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과 증권사들도 구체적인 코스피 하단을 제시하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불과 몇 달 전 증권가를 달궜던 '만피(코스피 1만)' 낙관론과는 대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시 전문가는 "상반기에는 AI와 반도체 덕분에 올랐는데, 하반기에는 엔비디아발 AI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시장의 지지선이 어디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과 글로벌 긴축 기조, 외국인 매도세가 공통적으로 지목됐다.

◆ 코스피, 불안의 무게 이겨낼까

젠슨 황 전 최고경영자(CEO) 불륜으로 시작된 엔비디아의 위기가 AI 산업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자금 블랙홀'(국내 외국인 이탈)로 떠오른 앤트로픽 상장이 맞물리며 대형 반도체주 의존도가 높은 코스피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열기가 크게 꺾이고, 시중 자금마저 고금리·고환율을 좇아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수급 공백도 코스피엔 악재로 작용했다.

대만 역시 한국처럼 대형 반도체주 의존도가 높지만, 증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가 메모리 업체보다 업황 변화에 덜 민감한 덕에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시장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불안에 무게가 실린다.

반등론의 근거는 밸류에이션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6배로, 지난 6일 5000선을 하회했을 당시(0.95배)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며 "지수의 급격한 레벨다운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할매수로 진입 시점을 나누라고 조언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5000선을 지지선으로 봤다.

반면 이번 악재가 단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5000선이 지지선으로, 여기서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젠슨 황 사임은 "구조적 악재인 것은 맞다"고 짚었다. 기술적으로 다음 지지선은 120일 이동평균선인 4400선 안팎이지만, 그 수준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후임자가 정해지고 엔비디아의 순환금융(고객사에 투자한 자금이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로 돌아오는 구조)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 이후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승 연구원 역시 "젠슨 황 사임 이후 AI 투자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당분간 노이즈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 1만2000선을 제시했던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코스피 예상 범위를 5100~9000선으로 수정했다.

결국 코스피 반등의 관건은 메모리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내년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유지될 경우 코스피의 적정 현재가치를 6300선으로 제시했다. 반면 미국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등 내년 반도체 발주와 출하 감소로 이어질 경우 4800선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매도세는 점차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영환 연구원은 앤트로픽 상장과 관련한 수급 이탈은 상장을 계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엔비디아와 미국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매도는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매도 규모는 곧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승 연구원도 앤트로픽 상장 이후 연말로 갈수록 외국인 순매도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새벽(한국시간)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19일(현지시간)에는 앤트로픽이 나스닥에 입성한다.

◆ 외국인 파는데 "코스피 사라"는 외국계 IB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여전히 "한국 증시가 리레이팅(재평가)되고 있다", "1만도 가능하다"며 국내 투자자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1일 발간한 '한국, 르네상스가 온다' 보고서에서 코스피가 앞으로 3~5년 안에 1만선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기업들의 자본 배분 변화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로 이어지면서 코스피 총주주 환원율이 현재 약 35%에서 향후 3~5년 내 50~60%까지 높아져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기업 수익성과 주주 환원 수준이 개선되면서 코스피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과거 8%에서 2030년 13.5~14.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런 변화들에 힘입어 코스피는 앞으로 3~5년 안에 1만선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는 코스피의 향후 3개월 목표치를 7500~8000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코스피 목표치 1만은 유지하면서도 금리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불확실성을 반영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노무라는 AI 투자가 메모리·서버 부품뿐 아니라 원전·전력기기·배터리 업종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자사주 매입 확대와 상법 개정 이행,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도 증시 재평가를 이끌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AI 투자를 둘러싼 시장 우려가 코스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한국 주식시장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도 "AI 설비 투자 성장세는 내년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빚내서 주식하다 다 잃었다"… 이달에만 1765억 강제청산

9, 10일 2거래일 동안 1009억대
투자자 예탁금, 6월比 38% 줄어
코스피 변동성에 채권 매수세

코스피가 4960선까지 밀린 가운데 이달 들어 빚을 내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주식이 강제 처분되는 반대매매 금액도 누적 1700억원을 넘어섰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내외 채권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졌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6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합산 17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9일(379억원), 10일(630억원) 단 2거래일 동안 반대매매 금액이 1009억원대에 달했다.

반대매매는 주식 거래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청산 규모를 말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빚을 내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이 갚을 여력이 줄어들자 강제 청산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협 통계는 투자자가 빌린 돈(미수금)을 결제 시한 내에 갚지 못해 발생한 반대매매만을 의미한다.

코스피는 이날까지 11거래일 동안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 4968.48까지 내려왔다.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투자자도 늘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탁금은 16일 기준 86조9247억원으로, 지난 6월 4일(139조6948억원) 대비 37.78% 감소했다.

대신 국내외 채권 시장에는 자금이 계속 몰렸다. 개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 순매수액은 지난 1~16일 기준 1조7885억원으로, 전월 순매수액 2조7135억원의 65.91%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9월 월간 개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액은 4조225억원으로, 2024년 4월(4조5273억원)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국내 투자자는 지난 7~10월 4개월 연속 미국 채권을 순매수했고 이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1~1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순매수액은 5억5295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6월 1억6600만달러 순매도에서 7월 8억8800만달러 순매수로 전환한 후 이달까지 '사자'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달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전월(15억740만달러)의 2배 수준인 31억9016만달러였다. 국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인 서학개미는 지난 한 주간 미국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속슬'(SOXL)을 가장 많은 15억6007만달러를 순매수했다. 알파벳(5억4046만달러), 나스닥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울트라프로QQQ(4억6367만달러)', 엔비디아(4억5294만달러), 나스닥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3억3181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터톤캐피탈 "코리아디스카운트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韓 주주관여 환경, 아직 초기단계
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미국계 투자회사 터톤캐피탈의 라이언 알버트 최고경영자(CEO)는 17일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꼽으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알버트 CEO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창업주 일가가 지분 20~40%를 보유하고도 모든 지분을 가진 것처럼 경영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가치를 높이기보다 상속세·증여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가 저평가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봤다.

한국의 주주관여 환경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에 행동주의 펀드가 70~90개에 이른다는 점을 들며 "야구 9회로 치면 한국은 아직 2~3회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의 지배주주 지분 구조가 다른 만큼 소액주주가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한국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연구기관 조사를 보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2026 ESG 평가 결과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는 지배구조 영역의 점수가 오른 가운데, 주주권리 부문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가 1035개사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평균 종합점수는 37.1점으로 지난해보다 0.6점 올랐다. 평균 등급은 지난해와 같은 BB였다.

최하위인 종합 C등급 비중은 18.2%에서 15.8%로 낮아졌지만, BB등급 이하 기업은 631개사(61.0%)로 여전히 과반이었다.

지배구조 영역에서 A등급 이상 기업 비중은 30.7%에서 32.9%로 2.2%포인트 늘었다. 중분류별로는 이사회가 27.8점에서 28.4점으로 0.6점, 감사기구가 51.6점에서 53.9점으로 2.3점 올랐다. 주주권리는 51.0점에서 55.4점으로 4.4점 올라 세 중분류 중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김아영 기자

LG U+ Simply. U+



고객님의 안전한 통신을 위해 유심(USIM)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LG유플러스는 고객님의 이동통신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유심 업데이트·교체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유심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유심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 유심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고객님
일정 : 2026년 10월 22일부터 순차 진행 예정

※ 고객님의 업데이트 예정일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진행 하루 전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 업데이트 중에는 통화 및 인터넷 연결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중 '서비스 없음(No Service)'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신 후에도 이용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U+ 매장을 방문해 주세요.
※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등 금융·결제 앱은 본인 확인을 위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 삼성 휴대폰의 업데이트 전 '다른 SIM 사용 제한' 기능이 켜져 있으면 자동 업데이트 후 비밀번호 인증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니 업데이트 전 반드시 해제해 주세요. (설정→'다른 SIM 사용 제한' 검색→해제)
※ 업데이트 후 화면상에 "비밀번호(PIN) 4~8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보이고 휴대폰 사용이 안된다면 '설정' 메뉴의 'SIM 카드 잠금' 항목에서 설정한 SIM PIN 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유심 자동 업데이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U+one 앱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유심 상담센터 **080-864-1010** |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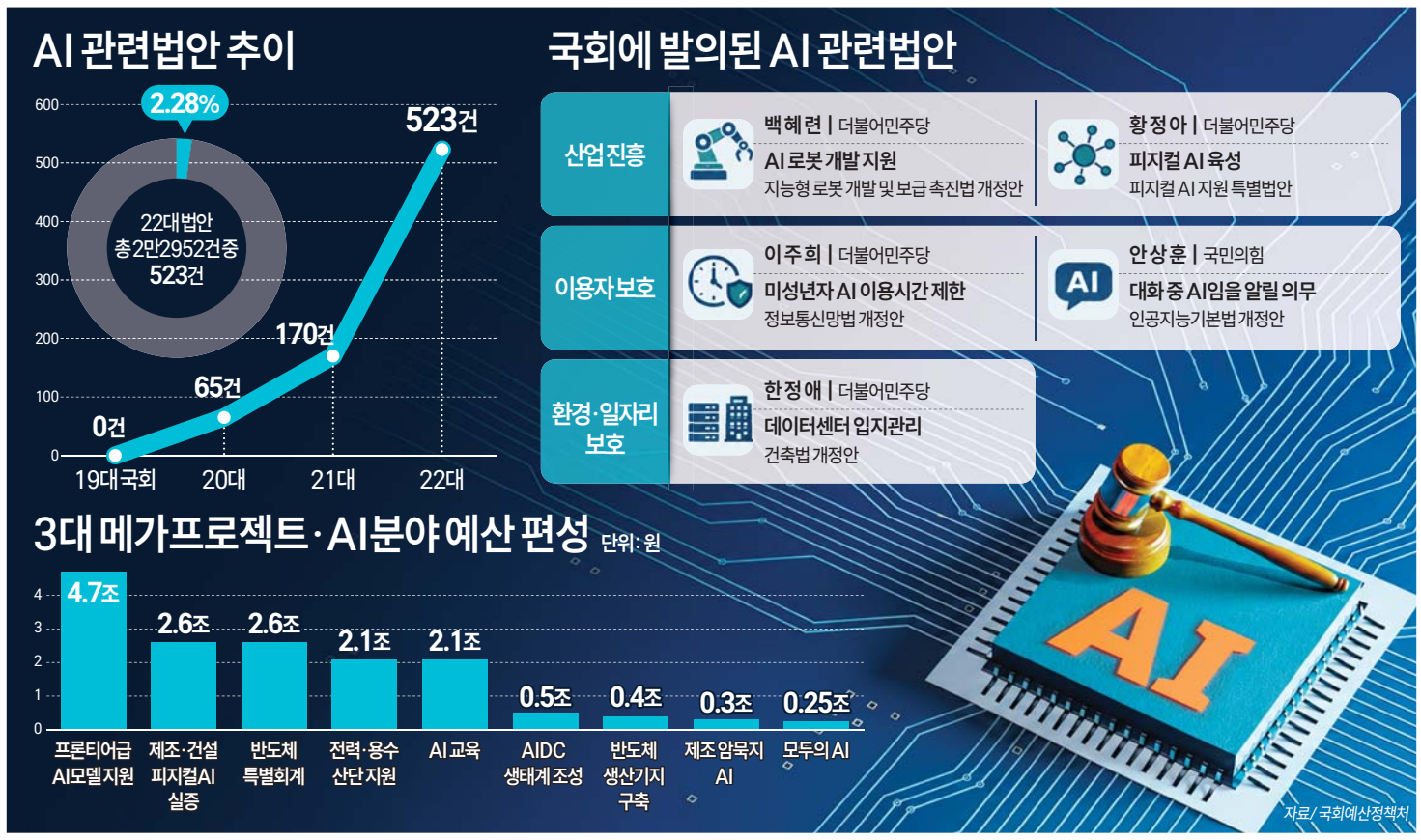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고객님께서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법안 523건 쏟아졌다… 산업 육성·사회적 안전망 과제

AI 3강으로 가는 길

❷ 국회, 법률 제·개정 속도

인공지능, 입법부 핵심 의제로 부상
산업 진흥·오남용 방지 법안 잇따라
내년 AI 예산, 올해보다 97.2% 늘어



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는 다양한 산업에 접목될 인공지능 관련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AI 시대에 소외되는 계층이나 분야를 보호하고 기술 진보가 몰고 오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에 힘 쓰는 중이다.

◆19대 국회 '0'건에서 22대 중반 '523건'으로 AI 입법 관련 쏟아져

'대(大) AI 시대'를 맞아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17일 오전 7시 법률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검색한 결과, 임기 절반을 지난 22대 국회에서 법률안명·제안이유·상세내용에 인공지능이 언급된 법률안은 총 523건이다. 22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처리된 법률안의 수가 2만2952건인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관련 법안의 비율은 2.28%에 달한다.

21대 국회에선 똑같은 조건으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총 170건 검색됐는데, 21대 국회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 비율은 0.6%에 그쳤다. 20대 국회에선 총 65건이 발의됐고, 2012년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 6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0월19일 기준 '인공지능'을 언급한 법률 제·개정안은 총 477건으로 ▲AI 발전 67건 ▲AI 융합(AX) 촉진 15건 ▲AI 오남용 방지 102건 AI 안전·신뢰 확보 15건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 간 입법 중복을 막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리된 'AI기본법'을 중심으로 법령을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진흥부터 규제, 소외 분야 보호까지 다양한 입법 발의

AI 관련 법률 발의 수가 늘어난 만큼, 각각의 법률안이 담는 내용도 산업 진흥부터 규제, AI로 인해 뒤쳐지는 계층과 일자리 보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이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정책 지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이 활성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및 안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로봇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지능형 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안을 담았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탄탄한 제조업 가치사슬, 고도화된 AI 역량을 모두 보유해 피지컬 AI 분야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며 이를 지원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법 체계가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각 산업별로 나뉘어져 있어 피지컬AI의 복합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진흥 법안을 내놨다.

인공지능을 사용이나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도 여럿 나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확산으로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이 문제되고 있다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사용시간대,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며 이용자가 장시간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하면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있음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이 몰고 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법안에 담겼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AI 데이터센터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소음·화재 등의 위험을 수반한다며 데이터센터가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 허가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경우 대체되는 업무, 기술 유형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관이 통계로 작성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인공지능 등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예산도 뒷받침 올해보다 AI 예산 97.2% 상승…신속·과감 추진에 우려도

정부는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인공지능) 분야에 총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97.2%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프론티어급 AI 모델 지원에 4조7000억원 ▲제조·건설 등 피지컬AI 실증에 2조6000억원 ▲반도체 특별회계에 2조6000억원 ▲전력·용수·산단 지원에 2조1000억원 ▲AI 교육에 2조1000억원 ▲AIDC(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에 5000억원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 4000억원 ▲제조 암묵지 AI에 3000억원 ▲모두의AI에 2500억원 ▲특화 AI 보안모델 사업에 1000억원 ▲풀스택 AI 팩토리 지원에 1000억원 이 주요 사업으로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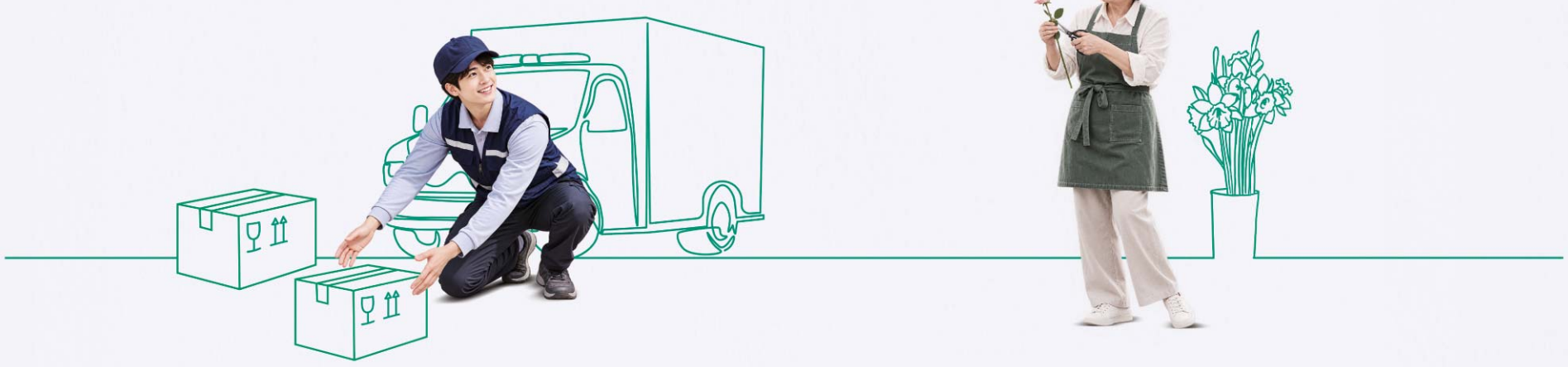
다만, 정부 주도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관련 사업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되다 보니 부처 간 협조와 중복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정부는 피지컬 AI 관련 데이터 사업과 AI데이터센터 기술개발·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실증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는 피지컬 AI 관련 데이터 사업과 AI데이터센터 기술개발·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실증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GS건설, '비욘드 리빙' 비전 공유… AI 기반 주택가치 확장

자이 미래전략 발표회

고객경험 중심 브랜드 전략 구체화
'AI 홈' 등 미래 주거 핵심상품 소개
"입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지난 16일 '자이 미래전략발표회'를 열고 있다. /GS건설

오후 4시, 아이가 먼저 집에 들어오면 거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가스밸브가 잠기며 부모의 휴대전화로 알림 메시지가 간다. 잠이 들자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은 취침 모드로, 공기청정기는 저소음 모드로 바뀐다. "이번 주는 골프 연습을 한 번도 못 하셨네요"라며 비어 있는 시간을 찾아 예약하고 캘린더에 일정까지 넣어준다. GS건설이 그리는 자이(XI)의 미래 주거 모습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자이 미래전략 발표회 '리이볼브(RE:EVOLVE)'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것, 그것이 자이가 지향해 온 도전 방식"이라며 "자이가 지켜온 가치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브랜드 자이의 중장기 비전은 '비욘드 리빙(BEYOND LIVING)'이다. 지난 2024년, 22년 만에 자이 브랜드를 새롭게 정비한 이후 약 2년간 추진해 온 고객 경험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구체화했다.

서아란 GS건설 브랜드전략부문장은 비욘드 리빙에 대해 "집을 넘어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주거 공간의 물리적 가치와 기능을 넘어 고객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변화에 맞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래 주거상품에는 인공지능(AI)과 공간 혁신, 기후 대응 기술을 접목했다. 3대 핵심 주거상품은 ▲거주자의 생활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집 'AI 홈(Home)' ▲생애주기에 따라 공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아이엑스 플랫폼(IX Platform)' ▲기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클리마 시스템(Clima System)' 등이다.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은 "미래의 집은 나를 이해하고 스스로 작동하며,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집이어야 한다"며 "입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함께한 시간만큼 거주자를 더 잘 이해하고 사는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스마트홈의 기술 진화를 6단계로 구분한 주거 자율화 레벨 체계(LHA)를 정립했다. 현재 국내 공동주택 스마트홈은 규칙 기반 자동화 수준인 레벨 1~2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주자의 상황을 인식해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실행하는 3단계 '상황인식 자동화'를 추진해 내년 하반기 분양 단지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호출이나 커뮤니티 시설 예약은 물론 "어젯밤 어디에 주차했지?" 같은 질문에도 답한다. 집에 혼자 있던 부모가 갑자기 쓰러지면 센서가 응급 상황을 인지해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로 알림을 보낸다.

보안 문제는 카메라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풀었다. 이 부문장은 "카메라에는 불필요한 고객 정보가 너무 많이 담기기 때문에 카메라 대신 모션 센서만 쓰기로 했다"며 "모션 센서만으로도 거주자가 자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호흡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기 안에서 정보를 처리해 상황을 판단하는 엣지 디바이스 방식을 적용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했다.

이 부문장은 "단지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주요 시설이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방재 시스템과 빗물 재활용 등 자원 순환 기술을 연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에 공개한 미래 주거상품을 통해 주택의 가치를 입주 시점의 상품성과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거주하는 동안 고객이 경험하는 생활의 질까지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지 입주민을 위해서는 내년 3월 자이 홈 앱 2.0을 내놓아 사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융권, 지역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나선다

3년간 4.5조 규모 저리 보증부 대출
금융위, 지자체 공모 통해 차등배분

금융권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번 대출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자체 이차보전을 결합한 방식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지원 규모를 차등 배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은행이 향후 3년간 3000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특별출연해 보증 재원을 지원하면 신보와 기보가 약 15배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 및 추천하며, 자체 재원을 통해 협약보증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5극 3특 균형발전 지원사업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차등화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사업(3년간 3조7400억원)은 사업 초반에는 시·도 단위로 균형 있게 지원하되, 2027년 중으로 사업이 안착되면 사업 추진역량 등을 평가해 최우수(3개 지자체) 3800억원, 우수(5개) 2800억원, 보통(5개) 2400억원으로 지원을 차등한다. 또한 오는 2027년 예정된 2차 공모(2년간 7600억원)에서는 시·도 간 자유로운 협력이 가능한 초광역 협력형 공모도 진행한다.

사업 평가는 정량지표 60점 및 정성지표 40점으로 나눠 실시한다. 정량지표에 포함되는 지역금융 취약도는 금융위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금융 인프라(점포·자동화기기 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정책부합도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조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노력과 타 부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수준을 평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2027년 1월까지 1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2월 중 제안서를 심사한다는 목표다. 또한 내년 1분기 평가결과 발표 후 필요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저리 보증부 대출을 지체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9000개 이상의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일반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담보·신용도 문제로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웠던 기업도 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투자·고용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금감원, 전자금융·온투업계 보안체계 점검

'침해사고 대응 관련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침해사고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부접점 집중점검의 충실한 이행과 보안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전자금융업자 227개사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47개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보안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해사고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활용 해킹 등 금융권을 겨냥한 침해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안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규모 전금업자와 온투업자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부 회사에서는 모바일 쿠폰·예치금 등 자금 탈취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전 금융권 외부접점 집중점검의 취지와 진행 방향,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화벽 기준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접점 내 모든 IT자산·서비스·API 등을 식별해 점검 및 보완하고, 이를 운영하는 내부통제의 작동 여부도 함께 점검하도록 했다. /안승진 기자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완화

75% 이상 →70% 이상… 전문기관 추가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내년부터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결혼 패널티'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했다.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물 위쪽으로 층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기존 건물이 추가 무게를 견뎌야 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검토를 맡아 심사 지연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이사하면 특별공급·일반공급 여부나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른바 '결혼 패널티'도 없앤다. 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높이고 안전성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채리 기자 cr56@

카카오뱅크, 'AI 목표적금' 10만좌 돌파

1분마다 약 2개 계좌 신규 개설

카카오뱅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의 저축 습관 형성을 돕는 'AI 목표적금'이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10만 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출시된 AI 목표적금은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한 달 동안 약 10만 명이 가입했다. 1분마다 약 2개의 계좌가 새로 개설된 셈이다.

AI 목표적금은 고객이 설정한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AI가 단계별로 조언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납입하고 만기 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최고 연 5.00%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AI가 고객의 저축 목표 설정부터 추가 납입까지 지원하는 기능이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입 고객 3명 중 2명은 AI가 제안한 목표 금액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수입이 발생한 날 AI의 추가 납입 권유를 통해 서비스에 진입한 고객 중 약 70%는 실제 추가 납입으로 이어졌다. 전체 가입 고객 10명 중 9명은 12개월 만기를 선택했으며, 5명 중 1명은 여행 관련 키워드를 저축 목표로 설정했다.

연령별로는 40대 가입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이상 26.4%, 30대 23.4%, 20대 이하 21.2% 순이었다. 40대 이상 가입자가 전체의 55.4%를 차지하면서 중장년층에서도 AI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하이닉스, AI 메모리 호황 질주… 설비·기술투자 '총력'

美 매출 147조, 전년 대비 3배 급증
HBM·서버용 D램 수요 확대가 견인
시설투자 31조… 작년 투자액 추월
연구개발비 10조 돌파 '역대 최대'
용인 팹 조기 가동 생산능력 확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매출이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생산시설 확충과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17일 SK하이닉스가 전날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매출은 236조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매출은 147조7392억원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5조1802억원보다 102조5590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미국 매출 확대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서버용 D램 수요가 늘어난 데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매출 규모가 커졌다.

주요 고객사에 대한 매출도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고객사 매출은 올해 3분기 누적 34조9778억원으로 전년 동기 17조3551억원보다 101.5% 증가했다. 전체 매출의 14.8%에 해당한다. 회사는 고객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거래처를 엔비디아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고객사에서는 23조850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전체 매출의 10.1%에 해당하는 규모다. 두 고객사 매출을 합하면 58조8287억원으로 전체의 약 24.9%를 차지한다. 중국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4.8배 증가한 56조1378억원을 기록했다.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세는 생산시설 투자로도 이어졌다. 올해 3분기 누적 유형자산 취득액은 31조216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투자액 30조173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투자액 17조5950억원과 비교하면 3분기에만 13조6213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 M15X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 1기 팹의 첫 클린룸 개방 시점은 당초 내년 5월에서 2월로 앞당겼으며, 내년 4분기 첫 양산 제품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증설은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주요 고객 14곳과 장기계약을 체결해 2027년과 2028년 생산 물량의 절반 이상에 대한 판매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차세대 메모리 기술 확보에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는 10조94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6조7325억원보다 약 50% 증가했다. 누적 연구개발비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은 4.3%다.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재무 여력도 커졌다. 올해 3분기 말 현금·현금성 자산 등은 114조45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6052억원 증가했다. 반면 차입금은 15조7996억원으로 같은 기간 8조2791억원 감소했다. 현금성 자산 등에서 차입금을 뺀 순현금은 98조6600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첨단 공정 전환과 신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실적발표에서는 HBM4 양산과 출하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버용 DDR5 판매량도 전 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고객 수요와 수익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효성티앤씨, 바이오 스판덱스로 유럽 공략

이탈리아 친환경 패션 포럼 참여
사탕수수 기반 섬유 경쟁력 강화

효성티앤씨가 사탕수수 기반 바이오 스판덱스의 생산 역량을 앞세워 유럽 친환경 섬유 시장 확대에 나선다.

효성티앤씨는 최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지속가능 패션 포럼(VSFF)'에 메인 파트너로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VSFF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경영진과 정책 입안자 등 800여 명이 모여 공급망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포럼의 지속가능 섬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베트남 공장의 '리젠 바이오' 스판덱스 일관 생산체계 가동 성과를 공유했다. 해당 공장은 사탕수수 유래 원료부터 완제품 섬유까지 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탈리아의 글로벌 무봉제 편직기 전문 기업 산토니(Santoni)와 공동 개발한 리젠 바이오 스판덱스 적용 의류도 처음 공개했다.

글로벌 바이오 스판덱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 원료 기반 섬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0월 바이오 소재 도입 확대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 기반 유럽 협의체(BEA)'를 출범했다.

효성티앤씨는 유럽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바이오 섬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지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스판덱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리젠 바이오 스판덱스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을 발효해 만든 원료를 활용한다. 효성티앤씨는 앞서 지난 2022년 옥수수 유래 원료를 활용한 바이오 스판덱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삼성, 메모리값 급등에 스마트폰 수익성 '악화'

메모리값 급등에 실적 부담 가중
MX사업부 3분기 6000억 적자
프리미엄 판매 확대·원가관리 집중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부품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원가 관리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6.7% 감소해 10억대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도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를 인용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지난 2025년 12억5900만대에서 11억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위축과 함께 저가형 스마트폰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저가형 스마트폰의 부품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5년 3분기 20%에서 올해 3분기 54%로 높아졌다. 일부 제조사는 저장용량과 카메라 사양을 조정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완제품 가격도 상승세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지난 9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존 스마트폰의 소매가격은 연초 대비 평균 15% 상승했다. 신제품 가격은 전년 대응 모델보다 평균 25% 높았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교체를 미루거나 할인 행사와 중고 제품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DX부문의 모바일용 메모리 평균 매입가격은 지난 2025년 연간 평균 대비 약 263% 상승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솔루션의 평균 매입가격도 8% 올랐다. 같은 기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 상승률은 13%였다.

올해 1~9월 삼성전자 DX부문의 모바일용 메모리 외부 매입액은 7조6993억원으로 전체 원재료 매입액 62조4307억원의 12.3%를 차지했다. 모바일 AP 솔루션 매입액은 10조7929억원으로 17.3%에 달했다. 두 부품의 매입액을 합치면 18조4922억원이다.

삼성전자 MX·네트워크사업부는 올해 3분기 약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 상승이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 AI·친환경 철강 경쟁력 강화

글로벌 고객사 450곳과 협력 확대
미래 신산업·탄소저감 등 26건 협약

포스코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을 확대하며 철강 사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포스코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지속가능소재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고객사 450개사의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다.

포스코는 포럼 기간에 글로벌 파트너 및 주요 고객사와 총 2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데이터센터(AIDC)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비롯해 조선·해양용 지속가능 소재 협력, 탄소저감재 공급 및 공동개발(JDA) 등을 추진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EVI 포럼'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철강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가 1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중인 '2026 지속가능소재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있다. /포스코

AX와 GX를 중심으로 고객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에서는 총 31건의 강연이 진행된다. 17일 오전 기조강연에서는 미래학자 조너선 브릴이 AX와 GX에 따른 산업 변화와 경쟁 우위를 제시했다. 이어 구글 클라우드의 프라빈 라오 산업 총괄과 유비테크 로보틱스의 친샤오쥔 해외사업 총괄이 AI 기반 산업 변화와 제조 혁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유혜온 기자

삼성, 학교 AI 교육에 갤럭시 XR 도입

중학생 대상 실감형 체험 확대
3D 여행·AI 대화 등 실습 강화

삼성전자가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AI) 교육에 확장현실(XR) 기기를 도입해 학생들의 체험 범위를 넓힌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부터 '갤럭시 AI 클래스'에 헤드셋 형태의 기기 '갤럭시 XR'을 활용한 체험 과정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여행 과목을 신청한 중학교 2~3학년 학급 중 XR 체험을 추가로 선택한 곳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수업은 전문 강사의 시연에 이어 조별 대표 학생이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서클 투 서치'로 눈앞의 사물을 검색하고 '제미나이 라이브'로 AI와 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몰입형 3차원(3D) 지도로 여행지를 둘러보고 입체 사진을 감상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가 구글·퀄컴과 공동 개발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탑재한 제품이다.

음성과 시선, 손동작으로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다. 이번 수업에서는 사용자가 보고 듣는 정보를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AI'의 작동 방식을 체험한다.

지난 3일 서울 대방중학교에서 열린 시범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크게 보여 생동감이 넘쳤다"며 "손으로 화면을 움직이고 AI와 대화할 수 있는 점이 신기하고 새로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기정원

中企 공정혁신 R&D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제조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R&D 과제 10개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돕는다. 과제당 2년간 최대 1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17일 기정원에 따르면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R&D'는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해 기업의 공정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연구기관과 중소제조기업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금속·뿌리, 비금속, 반응공정가공품, 전기·전자, 기계 등 5개 분야의 제조공정 참조모델 80개를 분석하고 중소제조기업 60개 사를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R&D 과제 10개를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올해 신규 벤처투자·펀드 결성금액 '역대 최대' 기대감

중기부, 신규 벤처투자 금액 12.6조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20% 차지
벤처펀드 결성액 12.9조… 30%↑

〈1~3분기 기준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개 사)

구분	2021년 1~3분기	2022년 1~3분기	2023년 1~3분기	2024년 1~3분기	2025년 1~3분기	2026년 1~3분기	전년대비
투자금액	108,679	102,126	77,118	86,463	98,362	126,248	+28.4%
기업당 평균 투자액	32.7	32.2	25.7	25.1	31.0	37.0	+19.2%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신규 벤처투자 실적과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분기까지의 투자 실적, 펀드 결성금액이 최고 기록을 써내려가면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1~3분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9조8362억원)보다 28.4% 증가한 12조6248억원으로, 종전 최고 기록인 2021년 1~3분기(10조8679억원)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벤처펀드 신규 결성금액은 12조9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상승했고, 앞서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1~3분기(12조7465억원)를 넘어섰다.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2조5522억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출자(10조4448억원)가 합친 결과라는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당시에 벤처투자 금액(15조9371원)과 벤처펀드 결성액(17조8493억원)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벤처투자금이 가장 많이 모인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로 19.9%(2조5061억원)를 차지했다. ▲전기·기계·장비(2조2447억원·17.8%) ▲바이오·의료(1조9174억원·15.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벤처투자 증가분(2조7886억원)의 절반 이상이 ICT 제조와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 이뤄졌다. ICT 제조와 전기·기계·장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7%, 53.1% 늘었다.

반도체, 로보틱스, 첨단제조 같은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 대한 대형 투자가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글로벌 뷰티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의 대형 투자 유치 효과로 화학·소재 업종 투자(1조32억원)도 1년 전보다 25.1% 증가했다.

지난 1~3분기 벤처투자는 업력 7년 이하와 7년 초과 기업 둘 다 상승했다.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6조7802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28.6%, 7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5조8446억원)는 28.1% 확대됐다.

특히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늘어난 2조5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AI·로봇·반도체 분야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형 투자를 주요인으로 꼽으며, 올 3분기부터 모태펀드의 창업초기 펀드 결성이 시작되면서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1~3분기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자 모두 늘었다.

수도권 벤처투자는 4조3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했는데, 경기도가 AI 반도체,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의 대형 투자를 유치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7% 상승한 비수도권 벤처투자(1조5199억원) 가운데 대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5802억원의 벤처투자 금액을 확보하며 전년 동기 대비 72.9% 상승했다. 바이오·의료 기업을 내세워 벤처투자 1978억원을 유치한 부산도 140.6% 증가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은 벤처 생태계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모태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모험자본 공급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공연 "일법 패키지, 사망선고 다름없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시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익 20% 부담
인력 AI 대체, 퇴직금 폭탄 등 우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에서 '일법 패키지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소공연

소상공인업계가 정부 추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일법 패키지(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들은 811만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 국가적 고용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이번 법안은 전체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모는 극단적인 규제"라며 "쥐 한 마리 잡겠다고 집 전체에 폭탄을 투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일법 패키지가 시행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주가 근로자 1인당 월 42만원, 연간 약 50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연간 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자영업자의 75%가 연 2000만원 이하의 영업이익으로 버티는 현실 속에 근로자 추정제로 인한 추가 부담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인공지능(AI)과 자동화 여파로 양질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 저수지' 역할을 해 온 소상공인의 일자리 둑마저 터져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실시되면 현장 인력을 무인 키오스크와 AI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특히 소공연은 근로자 추정제가 '퇴직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했다.

소공연은 "법률적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반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전과자로 내모는 올가미"라며 "소멸시효가 3년인 퇴직금 분쟁에서 계약 관계가 끝난 인력이 뒤늦게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대형 로펌이나 노무사의 자문을 상시로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자들은 부당한 합의를 강요받거나 형사처벌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일법 패키지 입법 논의 중단과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플랫폼 업종별 수수료 및 업무 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데이터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송 회장은 "우리의 절박한 생존의 목소리가 반영돼 법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전국 소상공인과 연대해 강력하게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고급세단 품격, 역동적 주행 모두 담았다

YG의 CAR TALK 카톡

BMW 더 뉴 i7 60xDrive

BMW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는 고급 대형 세단이 갖춰야 할 품격과 안락함,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BMW의 플래그십 전기 세단 '더 뉴 i7 60 xDrive'는 운전대를 잡았을 때도, 뒷좌석에 몸을 맡겼을 때도 각기 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544마력의 강력한 출력이 선사하는 운전의 재미부터 31.3인치 대형 스크린이 구현하는 프라이빗 영화관까지 한 대의 차에서 두 가지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럭셔리 세단의 매력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BMW '더 뉴 i7'



BMW '더 뉴 i7' 2열에 설치된 31.3인치 BMW 시어터 스크린. /양성운 기자

전기차 특유 즉각적 가속 반응
544마력 출력에도 정숙성 유지
영화관 같은 31.3인치 스크린

지난 4일 경기 가평군 청평 일대에서 신형 BMW i7을 시승했다. 전장 5395㎜, 휠베이스 3215㎜에 달하는 거대한 차체는 도로 위에서 단번에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형 키드니 그릴과 날렵한 분할형 헤드라이트가 어우러진 전면부는 BMW 플래그십다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차량에 탑승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 반응이다. 앞뒤 전기모터가 발휘하는 최고출력 544마력, 최대토크 76.0kg·m는 차체의 무게를 잊게 할 만큼 시원한 힘을 전달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8초. 가속페달을 깊게 밟으면 묵직한 차체가 거침없이 속도를 끌어올렸다. 강력한 출력에도 실내는 놀라울 정도로 정숙성을 유지했다.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 시스템은 대형 세단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또 주행시 가장 만족스러운 기능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BMW 파노라믹 비전이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는 차선 정보와 경로 안내, 속도 경고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앞 유리 하단 전체에 주행 정보를 표시하는 파노라믹 비전을 제공해 주행 시선이 중앙 디스플레이로 분산되는 일이 없었다.

운전석에서의 만족감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졌다. 2열에 탑재된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천장에서 31.3인치 BMW 시어터 스크린이 내려왔다. 동시에 측면 창문과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의 차양막이 닫히며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완성됐다. 화면이 펼쳐지는 순간 차 안은 마치 영화관처럼 변했다. 주행 중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정숙한 실내와 대형 화면이 어우러져 나만의 프라이빗 극장을 연상케 했다. 다만 시어터 스크린이 뒷좌석과 가까워 장시간 시청시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기차로서의 실용성도 갖췄다. 118.1kWh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08㎞다. 최대 250kW 급속충전을 지원하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28분이 걸린다.

BMW i7은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전기차의 즐거움을, 뒷좌석 탑승객에게는 이동을 넘어선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2억1490만~2억1790만원이라는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운전의 재미와 이동형 럭셔리 라운지를 동시에 원하는 고객에게 BMW가 제시한 플래그십의 해답은 분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전기차엔 전용 타이어 필요"… 한국타이어, '아이온' 확대

'아이온' 소재 브랜드 필름 공개
정숙성·접지력 등 핵심 성능 소개

한국타이어가 전기차의 저소음·고토크 특성에 맞춘 전용 타이어 기술을 알리며 '아이온' 브랜드 확대에 나선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6일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을 소재로 한 신규 브랜드 필름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상은 '전기차에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숙성과 접지력 등 아이온의 핵심 성능을 소개한다. 전기차의 주행 특성과 전용 타이어의 역할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숙성·그립력 두 편으로 제작했다.

정숙성 편에서는 엔진 소리가 없는 전기차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타이어 주행 소음을 다뤘다. 그립력 편에는 전기차의 강한 토크에 대응해 접지력과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담았다.

한국타이어는 2022년 유럽에서 아이온을 처음 출시한 뒤 한국과 북미, 중국 등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했다.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는 퍼포먼스·사계절·올웨더·겨울용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판매 비중도 확대됐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에서 전기차 전용 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32.3%로, 지난해 연간 27%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신차용 타이어 공급처도 늘리고 있다. 포르쉐와 BMW, 루시드, 폴스타, 현대자동차, 기아 등의 주요 전동화 모델에 아이온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영상을 글로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활용하고 전기차 주행 환경에 특화한 타이어 기술과 제품군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혁 기자 sh95@

제4회 2026 GLOBAL ACX AWARDS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 전환 확산을 이끄는 도약의 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AI 전환) 확산에 기여한 우수 제품·서비스 및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기업과 관계자 여러분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SW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공유와 함께 국산 AX 혁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귀빈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01. 행사 개요

일 시	**2026년 11월 25일(수) 13:30 ~ 16:00** (본행사 14:00 ~ 16:00)
장 소	**메타빌드빌딩 AI Space Center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B1F)
주최 / 주관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사)한국SW·AX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후 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인공지능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AI융합기술인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PMO사회적협동조합, 한국PMO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AI데이터산업협회, 한국상용인공지능SW협회,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한국핀테크협회 외
시상 부문	특별공로상 / 인재상 / AI 활용우수사례상 / 제품·서비스상

02.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주요 내용	비고 / 진행
13:30 ~ 14:00	30'	등록 및 VIP 사전 환담	VIP 대기실
14:00 ~ 14:05	5'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주요 내빈 소개	사회자
14:05 ~ 14:10	5'	환영사 및 개회사	(사)한국SW·AX총연합회장
14:10 ~ 14:25	15'	축사 및 격려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의원 주관언론사
14:25 ~ 14:45	20'	**정책기조연설 :** SW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45 ~ 15:00	15'	국산 AX 혁신 제품·서비스 성과 및 도입 성공사례 발표	대표 수상기업 1개사
15:00 ~ 15:05	5'	심사경과 보고 및 최종 수상자 발표	심사위원장
15:05 ~ 15:40	35'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본 시상**	부문별 유공자 및 우수기업
15:40 ~ 15:55	15'	전체 수상자 및 주요 내빈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55 ~ 16:00	5'	폐회선언 및 장내 정리	사회자

*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캔

[참가 신청 및 참석 회신 안내]

- 온라인 사전등록 URL : https://www.kswict.or.kr/awards-ceremony-2026
- 원활한 행사진행 및 지정 좌석 배치를 위해 **사전에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공간이 협소하오니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사무국 (문의: 02-858-8510 / 사무총장 박환수)

콘솔 강자 vs MMORPG 신작… 붉은사막·아이온2 '격돌'

오늘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
붉은사막, 글로벌 판매량 600만장
아이온2, 장기 서비스 역량 '강점'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 주요 경쟁작

	붉은사막 CRIMSON DESERT	아이온2 AION 2	netmarble 넷마블 출품작 3종
개발사	펄어비스	엔씨소프트	넷마블
장르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MMORPG	수집형·액션RPG 등
주요 플랫폼	PC·콘솔	PC·모바일	PC·모바일 등 작품별 상이
주요 성과·특징	글로벌 누적 판매량 600만장 돌파 자체 엔진 '블랙스페이스 엔진' 기반 광활한 오픈월드와 높은 그래픽 완성도	'아이온' IP 계승한 정식 후속작 대규모 전투와 진영 간 경쟁구도 글로벌 시장 공략 및 IP 확장	'몬길: STAR DIVE' '스톤에이지 키우기'·'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다양한 IP와 장르로 본상 후보 3개 진출
관전포인트	기술적 완성도와 글로벌 흥행 성과	MMORPG 장르 경쟁력과 지속성장성	작품별 완성도와 차별화된 게임성

자료/각사

대한민국 게임대상 주요일정

- 시상식: 11월 18일
- 장소: 부산 벡스코
- 본상후보: 총 12개 작품
- 온라인 투표: 11월 16일 마감
- 최고상 대통령상

국내 게임산업을 대표할 최고의 작품을 가리는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펄어비스의 '붉은사막'과 엔씨의 '아이온2'가 대상 경쟁의 중심에 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성과를 거둔 대형 신작들이 맞붙으면서 올해 게임대상은 한국 게임산업의 기술력과 장르 경쟁력을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은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통령상인 대상을 비롯한 본상 후보에는 총 12개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투표도 16일 마감되면서 최종 수상작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가장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품은 펄어비스의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이다. 붉은사막은 글로벌 누적 판매량 600만장을 돌파하며 한국 게임의 PC·콘솔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국내 게임업계가 오랫동안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심의 수익 구조에 의존해 온 상황에서 글로벌 패키지 게임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붉은사막은 광활한 오픈월드와 사실적인 그래픽, 역동적인 전투 시스템을 앞세운 작품이다. 펄어비스가 자체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을 기반으로 구현한 물리 효과와 환경 상호작용, 높은 수준의 시각적 완성도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순한 판매 실적을 넘어 국내 개발사가 자체 기술력으로 글로벌 대형 콘솔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대상 수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맞서는 엔씨의 '아이온2'는 한국 게임산업의 대표 장르인 MMORPG의 저력을 앞세운다. 원작 '아이온'의 세계관을 계승하면서 언리얼 엔진5 기반 그래픽과 대규모 전투, 자유로운 비행 및 탐험 요소를 강화한 작품이다.

특히 원작의 핵심 재미인 진영 간 대립과 이용자 간 협력·경쟁 구조를 발전시키는 한편 전투 시스템과 콘텐츠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MMORPG 이용자뿐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층까지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아이온2의 경쟁력은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확보와 수익 창출 능력에 있다. 일회성 판매 실적이 중요한 패키지 게임과 달리 MMORPG는 출시 이후 이용자 유지율과 콘텐츠 업데이트, 지속적인 매출 창출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붉은사막이 글로벌 패키지 게임 시장에서의 성과를 상징한다면 아이온2는 국내 게임업계가 축적해 온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역량을 대표한다는 평가다.

다만 게임대상은 매출이나 판매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게임의 완성도와 창의성, 기술력,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두 작품이 각각 어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느냐가 수상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넷마블도 올해 게임대상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몬길: STAR DIVE', '스톤에이지 키우기',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등 3개 작품을 본상 후보에 올리며 다작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넷마블은 기존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면서도 수집형 RPG와 캐주얼 게임, 오픈월드 액션 RPG 등으로 장르를 다변화했다. 단일 작품의 흥행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이용자층과 플랫폼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이 특징이다.

이 밖에 스마일게이트의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렐루게임즈의 '미메시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경쟁에 합류했다. 대형 게임사의 흥행작뿐 아니라 독창적인 게임성과 차별화된 개발 역량을 갖춘 작품들의 수상 여부도 관전 요소다.

이번 게임대상의 또 다른 관심사는 플랫폼별 경쟁 구도다. 과거 국내 게임시장이 모바일 MMORPG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최근에는 PC·콘솔 기반의 대형 신작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멀티플랫폼 게임으로 무게중심이 확대되고 있다.

붉은사막이 대상을 차지하면 국내 콘솔 패키지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반면 아이온2가 수상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장르인 MMORPG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결국 올해 게임대상은 흥행 규모를 넘어 한국 게임산업이 앞으로 어떤 시장과 플랫폼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진료기록·보험 서류 심사도 AI가 살핀다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의료 행정 혁신 경쟁
국내는 보안·비용이 관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진료기록과 보험 서류를 처리하는 의료 행정 인공지능(AI)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화면을 직접 조작하는 '컴퓨터 사용' 기술과 의료 데이터 연결 기능을 활용해 자료 취합부터 서류 초안 작성까지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안과 서버 구축 비용이 도입 과제로 지목된다.

오픈AI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챗GPT 포 헬스케어'의 컴퓨터 사용 에이전트 기능 개선과 의료 정보 검색 강화, 신규 의료용 플러그인 20여개를 발표했다. 에이전트는 기존 의료 프로그램의 화면을 읽고 클릭·입력하며 여러 시스템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공개 시연에서는 의료진이 챗GPT 앱에 음성으로 요청하자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검사 처방안과 환자 답변 초안을 작성했다. 의료 정보 검색은 근거 자료를 찾아 출처와 함께 제시하며, 플러그인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 보험 가입 자격 확인과 예약 관리 등도 돕는다.

오픈AI는 실제 운영 사례로 CVS헬스의 서류 발송·진료 의뢰 업무를 소개했다. 미국 약국·보험 기업 CVS헬스는 에이전트가 수개월간 밀린 서류 발송 업무를 주말 사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제미나이 포 헬스케어'를 시범 공개했다. 병원과 보험사의 기록·시스템을 연결해 의료 행정 업무를 돕는 AI 서비스다. 진료기록과 보험 보장 기준을 대조해 사전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이의신청서 초안을 작성한다. 미국 전자의무기록(EMR) 소프트웨어 기업 에픽의 시스템과 연동되며, 기존 기록을 수정하지 않고 정보를 읽어온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6일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을 돕는 AI 서비스 '드래곤 코파일럿'에 '워크 IQ'를 정식 적용했다. 이메일과 팀즈 대화, 공유 문서 등에 흩어진 업무 정보를 검색·요약하고 출처와 함께 제시하는 기능이다. 의료진은 대화창에서 당직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받은 임상시험 참여 기준을 찾아 요약할 수 있다. 보험 사전 승인 업무는 협력사 앱을 연결해 지원한다.

앤트로픽은 지난 1월 '클로드 포 헬스케어'를 공개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보험 심사·청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기준과 질병코드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다. 환자 기록을 보험 기준과 대조해 사전 승인 검토용 판단안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준비도 돕는다.

루닛은 지난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과학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과제로 개발한 '러닝유닛 2.0'을 공개했다. 병원 내부 서버에서 구동할 수 있는 의료 특화 AI다. /김보민 기자 kbm@

LGU+, 대한민국소통어워즈 4개 부문 대상

SNS·콘텐츠 경쟁력 인정

LG유플러스는 '제19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총 4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종합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상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소통대상 정보통신 부문 대상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시리즈 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중 종합대상과 인터넷소통대상, 소통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브랜드 슬로건 '심플리 유플러스'를 고객 경험으로 확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객 참여 플랫폼 '심플랩'에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실제 상품·서비스의 변화로 연결하고 그 과정을 콘텐츠로 공유해왔다.

심플랩에는 현재까지 1만4000여 건의 고객 아이디어가 모였다. 유플러스 원 자녀 계정 관리, 5G·LTE 통합요금제, 익시오 로밍콜과 로밍패스 등 18개 상품·서비스가 출시되거나 한층 개선됐다. 관련 콘텐츠는 678편이 발행돼 누적 조회 수 1억 3300만 회를 기록했다.

공식 SNS도 각 채널의 특성과 이용 방식에 맞춰 개편했다. 인스타그램에는 고객의 일상을 감각적으로 담고 친근하게 소통하는 'Keen & Warmth' 콘셉트로, 피드를 잡지 형식으로 개편해 고객이 직접 의견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늘렸다. /조민선 기자 msjo@

SK AX, 협력사와 공급망 경쟁력 높인다

동방성장 데이 열고 협력 성과 공유

SK AX가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통해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SK AX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SK u-타워에서 '2026 동반성장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종 SK AX 사장을 비롯해 120여 개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협력사와 달성한 상생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AI 확산에 따른 사업 환경과 고객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SK AX와 협력사가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객에게 더 나은 AX 혁신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투자와 인재 육성,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협력사들의 고민과 제안에 귀 기울이겠다"며 "협력사의 성장이 SK AX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회사는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 지원과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2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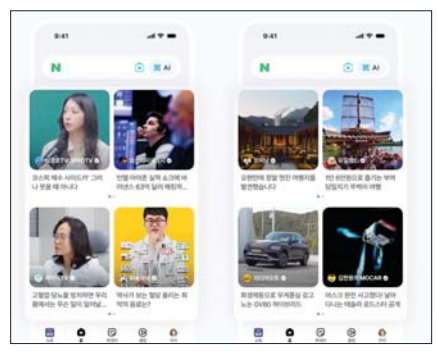
올해 행사에서는 AI 기반 구매 업무 서비스 '프로에이엑스(ProAX)'를 처음 공개했다. 이는 AI에이전트가 구매·계약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문서 작성·검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민선 기자

네이버, 연령·시간대별 맞춤 콘텐츠 강화

홈피드, 크리에이터 콘텐츠 추천 확대

네이버가 네이버앱 홈피드에서 전문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추천을 강화하며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에 나선다. 연령대별 관심사와 시간대별 생활 패턴을 반영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17일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6일부터 네이버앱 홈피드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춘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추천을 강화하는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번 테스트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며, 이용자 반응을 바탕으로 추천 품질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네이버앱 홈피드 화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이용자의 연령대와 관심사, 시간대별 생활 패턴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스포츠 등 시의성이 높은 이슈부터 건강·여행·음식 등 생활밀착형 정보까지 추천 범위를 확대한다. /최빛나 기자

“AI 시대에도 신뢰·윤리 중요”… 세계 회계 전문가 서울 집결

122년 세계회계사대회 韓 첫 개최
120개국 회계 전문가 1200명 참석
韓 회계개혁 경험 국제사회 공유
AI 확산에 회계사 역할 재정립 논의
신제윤 의장 “전문가 판단·책임” 강조


최운열(왼쪽 일곱 번째)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장 부코(왼쪽 여섯 번째)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 신제윤(왼쪽 여덟 번째)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세계회계사대회(WCOA 2026) 개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122년 역사의 세계회계사대회(WCOA)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막을 올렸다. 전 세계 회계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인공지능(AI) 확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회계 전문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국제회계사연맹(IFAC)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6 세계회계사대회’를 개최한다.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작된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120여개국에서 회계 전문가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

대회 주제는 ‘함께하는 우리, 함께 여는 미래(Together for a Connected Tomorrow)’다. 사흘간 금융시장 신뢰와 경제 회복력, AI와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투명성 등을 논의한다.

◆ 韓 회계개혁 경험 공유… AI 시대에도 ‘신뢰와 윤리’ 중요

이번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배경에는 경제 성장과 국제행사 개최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마누엘 아리아스 국제회계사연맹(IFAC) 총괄본부장은 개막 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제안과 우수한 행사 인프라 등을 서울 선정 이유로 꼽았다.

한국이 축적해 온 회계개혁 경험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한국은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을 계기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추진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AI와 지정학적 긴장,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는 시대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는 회계사의 윤리와 책임성이 제시됐다. 장 부코 IFAC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신뢰받는 이유인 핵심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각국 회계 전문가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리아스 본부장 역시 최근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윤리적인 행동은 회계 전문직의 근간”이라며 “시험에서 기술을 악용하는 것은 회계사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신제윤 의장 “AI가 업무 대체해도 책임은 人”

이날 ‘경쟁력 있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Building Competitive, Resilient Economies)’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AI 시대에도 전문가적 판단과 책임이 중요성을 꼽았다.

신 의장은 AI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제시해 전문 보고서가 철회된 사례를 언급하며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알고리즘 속으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I가 신입 회계사의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기존 인재 양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4대 회계법인은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각각 6~29% 줄였다. 그는 회계사가 전문가적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장 신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 의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경험을 소개하며 “위기는 신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신뢰가 사전에 구축돼 있었는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회계는 백미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는 전문직이었다”며 “그러나 이제 세상은 회계사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역할까지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회계사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거래 위축에 중소형 증권사 실적 ‘급랭’

8개사 순익 전분기比 64%↓
평가손실·판관비 증가 겹쳐
4분기 실적 회복도 불투명

3분기 중소형 증권사들의 이익이 한 분기 만에 크게 줄었다. 거래대금이 줄어든 데다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평가손실, 판매관리비 증가가 겹치면서 실적을 발표한 8곳 가운데 6곳의 순이익이 전분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중소형 증권사 8곳(교보·한화투자·유안타·LS·현대차·우리투자·iM·DB증권)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합계는 약 1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약 3276억원)보다 64.3% 줄어든 규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분기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2151조원으로 2분기(3412조원)보다 36.9% 감소했다.

전분기보다 순이익이 늘어난 곳은 iM증권 한 곳뿐이었다. 3분기 순이익은 21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1% 늘었다. iM증권도 3분기 상품운용 부문에서 72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지만, 기업금융(IB)·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 순영업수익이 12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3% 늘며 이를 메웠다(별도 기준).

감소폭이 가장 컸던 곳은 교보증권이다. 3분기 순이익은 85억원으로 전분기(901억원)보다 90.6% 줄었다.

LS증권과 DB증권도 이익이 전분기의 5분의 1 아래로 줄었다. LS증권의 3분기 순이익은 6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85.4% 감소했다. 판관비가 6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3% 늘며 이익을 깎았다. DB증권은 순이익이 69억원으로 82.9% 줄었다.

우리투자증권은 3분기 순이익이 30억원에 그쳐 전분기(110억원)보다 72.7% 줄었다. 대손비용이 105% 늘어난 영향이다. 한화투자증권도 순이익이 11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7.2% 감소했다.

반면 유안타증권은 순이익이 43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9.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1년 전보다는 46.5% 늘었다.

수수료수익이 2231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고, 금융상품 평가·처분 손익도 소폭 이익을 내며 운용에서 손실을 피했다. 같은 업황에서도 운용과 비용 관리에 따라 회사별 성적이 갈린 셈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IB와 트레이딩은 자기자본이, WM은 지점망이 중요한데 지점망 운영 비용도 결국 자기자본과 연결된다”며 “자본이 적은 소형 증권사는 기관 브로커리지 비중이 커 거래대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4분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김 수석연구원은 “중소형사 실적 회복에는 거래대금 반등이 중요한데 4분기 거래대금이 충분히 좋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거래대금 증가로 중소형사에도 간접 효과가 있겠지만, 채권평가이익은 트레이딩 규모가 큰 대형사에 더 크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아영 기자 aykim@

앤트로픽 IPO에 26조 매수 수요… 지수 편입 기대

상장 한 달간 매수 수요 집중
패시브 매수 물량 공모주 29%
스페이스X보다 편입 늦을 듯

기업공개(IPO) 이후 앤트로픽을 좇는 자금이 190억달러(약 26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미국 증시의 핵심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되기까지는 앞서 상장한 스페이스X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블룸버그 통신과 외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이 19일 예정대로 거래를 시작하고 조기 편입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달 11일 장 마감 후 러셀1000 지수에, 21일 개장 전 나스닥100 지수에 각각 편입될 수 있다.

6월 상장한 스페이스X는 약 일주일 만에 러셀1000에, 상장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나스닥 100에 입성했다.

당시 FTSE 러셀과 나스닥은 대형 신규 상장 종목의 편입을 앞당기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앤트로픽의 상장 시점이 두 지수 산출기관의 12월 리밸런싱 일정과 가까워 별도의 편입 절차를 밟기보다는 12월 리밸런싱 과정에서 편입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은 지수에 신규 종목이 들어오는 때에 맞춰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수 편입 시점이 중요하다.

투자은행 베렌베르크는 러셀과 나스닥,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모닝스타 등 주요 벤치마크 추종 자금까지 합산할 경우 상장 후 한달간 유입되는 앤트로픽 주식 매수 수요는 190억달러(약 2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리서치업체 인트로픽은 지수 추종 펀드의 매수 물량이 앤트로픽 IPO 공모 물량의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한국PR대상 IR 우수상

대주주 교체 후 투자자 소통 강화
성장 전략·주주가치 제고 공유

한양증권이 대주주 교체 이후 중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투자자에게 알린 성과로 한국PR대상 투자자관계(IR)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경영진이 유튜브 생중계에 직접 나서 새 경영체제의 방향을 설명하는 등 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힌 점이 수상으로 이어졌다.

한양증권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한국PR대상’에서 IR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수상작은 ‘NEXT 70 | 다음 70년의 성장과 가치를 전하는 IR 커뮤니케이션’이다. 한양증권은 올해 IR 부문에서 단독 수상했으며 전체 수상 기업 가운데 증권사로는 유일했다. 한국PR협회가 주관하는 한국PR대상은 1993년 제정됐다. 올해 IR 부문에서는 인수합병(M&A)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등 주요 경영 현안을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케이씨지아이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를 새 대주주로 맞은 뒤 본업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밸류업 정책의 이행 과정과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도 투자자에게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김병철(가운데) 한양증권 부회장과 홍보마케팅실 직원들이 ‘제34회 한국PR대상’ 투자자관계(IR)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양증권

회계부정 신고자 보복 피해 막는다

금감원, 불이익 신고 직접 접수

회계부정을 신고한 뒤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면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이 불이익 신고를 직접 접수해 조사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핫라인을 가동한다.

17일 금감원과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의 보복을 우려해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신고 이후의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각각 접수·처리해 온 회계부정 신고와 신고자 보호 사건의 정보를 공유한다. 같은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일을 줄이고, 해고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보호가 시급한 경우에는 신속히 협조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신고자에게 긴급 보호가 필요할 때는 양 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보호조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의 회계부정 신고 메뉴에 불이익조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 해당 메뉴는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신청 창구인 청렴포털과도 이 메뉴를 연계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aT, K-푸드로 중앙아 신시장부터 방콕 입맛 사로잡았다

카자흐 '알마티 국제식품박람회'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20개사와
1430만弗 규모 수출상담 성과
인삼 품목관, 신선과일 홍보 행사

태국 방콕서 'K-스트리트 팝업'
고구마·한강라면 등 시식·체험



'2026 알마티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관.



태국 방콕 쇼핑몰에 조성된 'K-스트리트푸드 팝업스토어'. /aT

중앙아시아 시장 등 K-푸드의 블루오션 진출 확대가 시도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의 경우, 중동 지역 바이어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다국적 홍보 효과도 갖는다. K-푸드가 이미 널리 확산해 있는 동남아에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 등 K-드라마와 연계한 새 식품군 투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13일 사흘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타켄트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6 알마티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aT와 국내 참가업체들은 14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이자 중앙아시아 경제·물류 거점 도시다. 박람회 역시 중앙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로,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을 비롯해 중동 권역 바이어들이 집결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지역 내 러시아를 잇는 제2의 경제국이자 다량의 지하자원으로 인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형 편의점 유통채널 확대로 K-푸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블루오션이다.

aT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20개사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구성했다. 라면 등 면류를 비롯해 차류, 과자류, 음료류, 쌀 가공식품, 인삼류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신규 거래처 발굴에 나섰다.

특히 한국 인삼의 중앙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인삼 품목관을 운영하고, 한국산 신선과일 시식·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현장 상담에 참여한 현지 유통바이어 올가 씨는 "K-푸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많아,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라면 카페 등 K-푸드 전문 유통채널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냉동식품과 외식·호텔·급식업계용 식자재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현지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앙아시아 K-푸드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달 7~15일 기간에는 태국 방콕을 찾았다. aT는 현지 대표 쇼핑몰인 시암디스커버리에 'K-스트리트푸드 팝업스토어'를 설치하고 한국 농식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라면·만두·떡볶이·핫도그 등 한국 대표 길거리 음식을 현지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장은 ▲시식·판매존 ▲한강라면 체험존 ▲고구마 홍보존 ▲소비자 체험존 등으로 꾸려졌다.

특히 고구마를 전략 홍보 품목으로 선정하고 현지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군고구마와 고구마튀김 등 다양한 시식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아울러 현지 수입·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바이어와 협력해 라면·떡볶이·만두 등에 대한 시식·판매 행사도 가졌다. '한강라면 체험존' 방문객들은 직접 라면을 고르고 즉석에서 조리해 먹는 경험을 했다.

룰렛 게임과 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했다. 행사 참여자에게 판매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경품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캔버스백을 증정하는 등 체험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현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했다. aT 관계자는 "개막 행사에 태국 아이돌 그룹 'LE7E L(레벨)'이 참석해 소비자들과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며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현지 인플루언서들도 체험 영상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온라인 홍보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축평원장, 'AI·데이터 혁신' 리더십 발휘

박수진 원장, SEA 최고경영자상
AX추진단·AI판정전환팀 통해
계란 등급판정 시간 최대 64% 단축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박수진 원장(오른쪽).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서비스 엑설런스 어워드(SEA) 공공부문 최고경영자(CEO)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 기여도·공로 등을 심사해 수여한다.

박 원장은 부임 첫해인 올해, 안정적인 기관 경영 및 내부 직원의 신속한 적응을 위해 기존 업무 방향은 지키되 'AI·데이터 혁신'을 새 축으로 삼았다. 이른바 '온고지신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취임 후 국정과제와 경영전략에 기반해 5대 성과목표 및 6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또 AI 기술로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AX(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 로드맵을 수립·선포했다. 특히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AI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AX추진단과 AI판정전환팀을 통해 계란 등급판정 시간을 최대 64% 줄이는 성과를 냈다.

국민이 체감하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성과도 주요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박 원장은 재정경제부 고객만족도 평가 8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를 기반으로 리더십의 토대를 설계했다. 이러한 국민의견 환류 체계를 기반으로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2026년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했다.

박 원장은 "이번 수상은 AI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노력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협업해 경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축산유통 전문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주최한 2026년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렸다. 행사장에서는 시상식 외 'AI 시대, 축산유통 서비스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주제의 특별 세션도 운영했다.

축평원은 'AI 기반 축산물 품질평가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축산유통 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현장 서비스 혁신 ▲데이터 연계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학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추진 중인 AX 전략과 서비스 혁신 과정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I로 '금강밀' 해독해 표준유전체 구축

농진청, AI에 유전변이 등 학습시켜
출수 특성 예측 기술 개발 성공

AI의 도움을 받아 곡식 품종의 개발·개량이 활기를 띠게 될 '디지털 육종' 시대가 다가왔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AI를 활용해 우리 밀에서 유전체 해독부터 형질 예측까지 이어지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교배 및 선별을 통한 품종 개발에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 밀 연구는 국제밀유전체해독컨소시엄(IWGSC)이 구축한 중국 품종 '차이니즈 스프링'의 표준유전체를 활용해 왔다. 세계 밀 연구의 주요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 밀의 고유한 유전적 특성과 품종 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보였다.

농진청은 한계 보완을 위해 최신 염기서열 분석기술을 활용했다. 고유 밀 품종인 '금강밀'을 해독하고 세계적 수준 품질의 표준유전체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 국산 밀의 유전체를 기준으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확보한 유전정보를 활용해 '출수기(이삭 패는 시기) 형질 예측 모형'도 개발했다. 여기에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구축한 밀 핵심집단 614점 및 8년간의 출수기 조사자료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금강밀 표준유전체를 기준으로 국립식량과학원이 구축한 핵심집단의 유전정보를 슈퍼컴퓨터로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약 6억 개의 유전변이를 확보했다. 또 유전변이와 출수기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출수기와 관련된 후보 유전변이 1만725개를 선발했다.

이후 선발된 유전변이와 출수기 자료를 AI에 학습시켜, 밀의 출수 특성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출수일을 예측한 결과, 실제 출수일과 단 하루 차를 보이며 정밀한 예측이 가능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층 산림복지 분야 경력전환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
대전 지역 시작으로 전국 확산 계획

노사발전재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숲해설가 양성 등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양 기관은 17일 중장년층의 산림복지 분야로의 경력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자격 취득자와 전문업 종사자 가운데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이 60~70%에 달한다. 퇴직 후 자연 속에서 건강을 돌보며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나누는 가치 중심형 일자리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전환을 지원하고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양 기관은 산림복지 분야의 직무탐색과 현장 체험 등 기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도전이 실질적인 지역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5대 핵심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중장년 대상 산림복지 일자리 정보 제공 ▲맞춤형 경력 설계 및 직무교육 ▲산업 수요 기반 일자리 발굴 및 기업 연계 ▲산림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일터 혁신 ▲중장년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 홍보와 행사 등이다.

두 기관은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중장년 고용활성화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김정관, 수출 1조弗 앞두고 인천신항 방문

〈산업부 장관〉

"인천신항, 세계시장 향하는 관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출 길목을 방문했다. 올해 누계 수출이 이르면 이번 주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근로자들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김 장관은 17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수출품이 세계로 향하는 현장을 살폈다.

그는 "수출 1조 달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다"라며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과 생산현장을 지켜 온 근로자, 우리 제품이 세계 곳곳에 도달하도록 뒷받침해 온 물류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천신항은 중고차·화장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우리 수출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수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했다.

연초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 달러로, 1조 달러까지 363억3700만 달러가 남았다. 관가에선 일평균 수출액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또는 20일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NAVER

보령 비타민D 4000IU 츄어블

지금바로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경기도 내년 예산 42조 편성… 세수 감소에 재정난 가중

올해보다 예산 5.3% 늘었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가용재원 2조↓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등 미반영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책 기자회견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대의 기자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42조194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로 자체 가용재원이 크게 줄면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에 나섰다.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정경비 일부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조1369억원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비다. 반면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34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도는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원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보다 약 1조원(25%) 적은 규모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집행 부진 사업을 조정했으며, 도지사 신규 사업도 편성하지 못했다. 시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보조율은 대부분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확보한 재원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안전·돌봄 강화, 미래 성장 기반 확보 등 4개 분야에 집중 배분했다.

민생경제 분야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원,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130억원, 유치원·초중고 급식비 2445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616억원을 편성했다.

취약계층 보호에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3511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5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 276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108억원을 반영했다.

안전·돌봄 분야에는 지방하천 정비 90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6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을 배정했다.

미래 성장 분야에는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14억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585억원 등을 편성했다.

그러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음에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정경비 일부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도는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두석 실장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지방세제 구조 개편으로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켜야 할 민생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면서 미래 투자는 이어가겠다"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강조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구미 1산단, 산업·문화 거점 '탈바꿈'

삼성 AI 데이터센터 건립
첨단산업 연구시설 확충


지난 5일 구미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착공식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가 삼성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첨단산업 연구시설 확충,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재편된다.

구미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구미1공장 부지에서 60M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착공했다. 총 6조원을 투입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정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삼성의 19조원 투자 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다.

구미시는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로봇 양산 라인과 AI 드리븐 팩토리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260억원이 투입된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개소식이 예정돼 있다.

공장 해외 이전 이후 20년간 방치된 방림부지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396억 원),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검증 테스트베드(400억 원), 첨단 소재·부품 혁신 파운데이션 플랫폼(7,100억 원) 등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KTR 경북거점 및 BaaS 시험실증센터(272억 원), 디자인 AI 인프라를 갖춘 HAI센터(180억 원)도 추진된다.

문화·재생 분야에는 총 7,745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산단 프로젝트 2,821억 원과 대규모 재생사업 4,924억 원으로, 방림부지 공장 8개 동은 원형을 보존한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322억 원)로 조성한다. 창고 6개 동은 시립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 이전기관, 이웃사랑 희망상자 제작

취약계층 1000세대에 생필품 전달

부산시와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할 생필품 꾸러미를 직접 제작한다.

부산시는 오는 19일까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혁신도시 13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희망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17일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18일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 19일 영도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희망상자는 즉석밥과 라면, 세제 등 생필품 16종으로 구성되며 취약계층 10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물품 구입에는 이전공공기관이 조성한 공동성금 465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부산시는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13개 이전공공기관은 올해 총 5650만원 규모의 공동성금을 조성해 상·하반기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대응체계 가동

내년 3월 15일까지 상황팀 운영
상황관리·기술지원·신속대응반

경남도는 대설·한파와 축사 화재에 대비해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대책 상황팀을 운영한다. 상황팀은 상황관리반·기술 지원반·신속대응반 등 3개 반, 19명으로 구성했다.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상황팀이 시군과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에 기상정보를 전파하고 대응에 나선다.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 상황을 파악해 응급 복구 인력과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금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27일 노후 축사와 가설건축물 축사, 과거 피해농가 등 275개소의 전기설비와 버팀목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현장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소방부서와 협력해 노후 전기설비 점검과 화재 예방요령 안내도 진행한다.

2027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는 2026년보다 50억원 늘어난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에도 1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달 시군·축종별 단체·농축협과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7년 1월~2027년 2월에는 돼지 1000두, 닭 3000수, 오리 2000수 이상 사육농가 등 재해에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시설을 정기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경북도, 22개 시군 맞춤형 전략사업 발굴

2028년 국비사업 확보 나서

경북도가 22개 시·군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2028년 신규 국비사업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상북도 27년 전략사업 기획 시·군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22개 시·군과 지역대학, 혁신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학산업국 주요 정책과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K-과학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산학협력단과 혁신기관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규 전략사업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올해 기획전문가 10개 그룹을 구성하고 과제회의 25회, 성과보고회 3회를 열어 전략사업 10건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5건은 중앙부처에 국비 건의 과제로 제안했다.

전략사업 분야는 농업AX(인공지능 전환), 스마트농업, 반도체·제조 AX, 재활의료 AX, 콘텐츠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역별 산업기술 수요와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시·군별 전략과제를 구체화해 2028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2개 시·군이 각기 다른 산업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가진 만큼 모든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 세미나

김해시는 16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 가야홀에서 '2026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물류거점 조성 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로 6회째인 세미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대응하고 김해 동북아 물류플랫폼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과 학계·연구기관, 물류·항만 분야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평택시

日 마쓰야마시와 공무원 교류

평택시가 일본 우호 도시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와 공무원 교류를 확대하며 실무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에 나섰다.

평택시는 마쓰야마시 공무원 축구단 대표단 13명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택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 방문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간 친선경기와 행정 경험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평택을 찾은 마쓰야마시 대표단은 지난 13일 평택시청에서 최원용 시장을 만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경기)=김예원 기자 ywon@

산청군

고교 졸업까지 성장지원 확대

산청군은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돕는 '산청형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현재 8700만원 수준인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을 2026~2028년 1억7000만원, 2029~2030년 2억원, 2031~2032년 최대 2억3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각 금액은 기존 지원과 이전 단계 지원을 합한 총액이다.

1단계에는 산청형 학생성장 지원사업을 신설해 초등학생에게 월 6만원, 중학생에게 월 9만원, 고등학생에게 월 1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청(경남)=이정민 기자 metrobusan6@

해남군

두륜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해남군은 오는 12월까지 두륜산 도립공원 지정 탐방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정비구간은 북미륵암과 노승봉 구간을 비롯해 길 정원 내 물소리길, 오소재~오심재, 출입구(매표소) 산책로 구간이다.

두륜산을 찾는 탐방객의 주요 노선으로, 겨울철 경사가 급한 장소 위주로 탐방객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정비가 실시된다.

주요 정비사항은 돌계단 및 데크계단을 설치하고, 손잡이 레일과 미끄럼 방지장치, 야자매트 등 설치와 노승봉 구간 낙석 정리 등이 시행된다.

/해남(전남광주)=이대호 기자 eogh7505@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K-푸드'… 내수 부진에도 실적 선방

식품업계, 3분기 국내외 희비
해외생산·유통망 확충에 투자 집중

CJ·오리온, 글로벌 매출 확대 견인
삼양식품, 불닭 열풍 분기 최대 기록
롯데웰푸드·남양유업도 수출 호조



대니 킴이 미국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비비고 김밥을 맛보고 있다. /CJ제일제당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내수 침체와 원부자재·물류비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해외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실적을 방어했다. 만두, 스낵, 라면 등 주력 K-푸드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견조한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 사업의 수익성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품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내수 고전·해외 약진'으로 요약된다.

가장 굵직한 외형을 갖춘 CJ제일제당은 대한통운 제외 기준 3분기 매출 4조2300억원, 영업이익 20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6.9% 성장했다. 주력인 라이프스타일 식품사업부문은 국내 원부자재 및 물류비 부담 탓에 영업이익(1187억원)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해외 식품 매출이 3.7% 늘어난 1조5093억원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유럽과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만두와 햇반 등 글로벌전략제품(GSP)의 입점과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오리온 역시 해외 비중이 70.6%에 달하며 글로벌 시장의 덕을 톡톡히 봤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3% 늘어난 9227억원, 영업이익은 9.4% 늘어난 150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 법인은 원부자재 및 물류비 상승 여파로 영업이익이 4.3% 감소한 403억원에 그쳤지만, 중국과 러시아 법인이 실적을 견인했다. 중국 법인은 간식점과 이커머스 공략에 힘입어 매출 3840억원, 영업이익 732억원을 달성했으며, 스윙칩은 3분기 누적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러시아 법인 역시 다제품 체제 강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2%, 47.9% 급증했다.

라면 업계는 해외 매출 비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25.3% 증가한 7918억원, 영업이익은 49.9% 증가한 1962억원을 기록,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해외 매출만 6608억원(비중 83.5%)으로 29.4% 급증했으며, 미국과 유럽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농심은 연결 매출이 9296억원으로 6.7% 늘었으나, 팜유 국제 시세 상승(1~9월 평균 톤당 1174달러, 전년 연평균 대비 12.6% 증가)과 해상운임 부담으로 국내 수익성이 악화하며 전체 영업이익은 8.6% 줄어든 497억원에 그쳤다. 다만 1~3분기 누적 미국 부문 영업이익이 4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3% 급증해 내수 정체를 메우며 해외 성장세를 입증했다.

제과와 유업계 역시 해외 성적표가 실적을 견인했다. 롯데웰푸드는 3분기 연결 매출 1조1739억원, 영업이익 89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1.5%, 29.7% 증가한 수치다. 내수 시장의 효율화 작업 속에서도 인도(초코파이 제4라인 안정화)와 카자흐스탄 법인의 약진으로 해외 법인 매출(2710억원)과 영업이익(231억원)이 각각 16.1%, 137.8% 뛰며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남양유업 또한 3분기 연결 매출 2576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104% 증가해 흑자 폭을 키웠다. 3분기 누적 수출 매출은 약 69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약 396억원)을 넘어섰고,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핏'과 커피 제품군을 중심으로 기타 부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2배 급증하며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업계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6년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식품산업 경기전반 현황지수는 99.5로 기준치(100)를 밑돌았으며, 원자재 구입가격 지수는 121.0에 달해 원가 부담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에 식품업계는 4분기에도 해외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에서는 고성장 채널 중심의 수익성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오리온은 국내외 증설 라인을 본격 가동하고 중국·러시아·베트남에 중장기 생산시설 투자를 이어간다. CJ제일제당은 북미 햇반 경쟁력 강화와 권역별 주력 카테고리 확장에 주력하며, 롯데웰푸드는 인도 빙과 퀵커머스 확대와 국내 창고형 할인점·생활용품점 등 신성장 채널 공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리아, 도시 소비자 농촌 관광길로 이끌어

전국 27개 농촌마을 방문 유도
참가자 이동거리 7656km 기록



떼닝왕 선발전_아산 외암마을 인증 사진. /롯데GRS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진행한 농촌 관광 활성화 캠페인 '2026 전국 떼닝왕 선발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에 분포한 오프라인 매장 인프라를 활용해 도시 소비자의 발길을 농촌으로 직접 이끈 '체험형 로컬 상생 모델'로 기획됐다. 전국 27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인접한 롯데리아 매장 25곳을 매칭해, 매장 픽업 주문과 마을 방문 인증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최다 인증자 타이틀인 1위는 대상지 27곳 중 무려 26개 마을을 직접 누빈 4인 가족에게 돌아갔다. 우승 가족은 "경남 사천 여행 중 롯데리아 사천점에 붙은 캠페인 포스터를 보고 즉석에서 참여를 결심했다"며 "가족 모두 여행을 즐기는 편이라 미션을 하나씩 완수하는 재미에 빠져 전국 26개 마을을 완주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부모님은 '리아 새우', 언니는 '모짜렐라인 더 버거 베이컨', 동생은 '리아 불고기'를 최애 메뉴로 꼽으며 온 가족이 즐겨 찾는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캠페인 기간 전체 참가자들의 누적 이동거리는 한반도(약 1000km)를 약 8회 종단한 것과 맞먹는 7656km로 집계됐다. 특히 연계된 27개 농촌마을의 40% 이상이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해당해 소멸 위기 지역에 실질적인 관광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방문 빈도가 높았던 권역은 영남이 1위를 차지했고 충청, 호남, 경기, 강원, 제주가 뒤를 이었다.

이번 도농 상생 프로젝트의 배경에는 롯데GRS가 장기간 이어온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롯데리아는 ▲양상추 약 6만 톤 ▲토마토 약 2만 톤 ▲양파 약 7000톤 등 핵심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수매해 왔다. 계열 브랜드 엔제리너스 역시 제철 음료 및 베이커리를 통해 딸기·수박·사과 등 국산 과일 약 1000톤을 소비하며 농가 판로 확보를 지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웰푸드, 아이스크림 4종 성탄 한정판

돼지바·찰떡아이스 등 새 단장
구매 인증 이벤트 두 차례 진행

롯데웰푸드가 연말 성수기를 겨냥해 겨울 분위기를 담은 시즌 한정 아이스크림 패키지 '크리스마스 마켓 컬렉션'을 출시하고 소비자 경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에디션은 롯데웰푸드의 스테디셀러 빙과류인 ▲돼지바 ▲찰떡아이스 ▲구구콘 ▲티코 등 4종에 적용된다. '특별한 크리스마스 마켓'을 콘셉트로 디자인된 각 패키지에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빌리지, 트리, 회전목마 등 서로 다른 연말 오브제를 그려 넣어 수집하는 재미를 더했다.

롯데웰푸드는 제품 출시와 함께 구매 인증 이벤트도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1차 프로모션은 오는 22일까지, 2차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한정판 패키지가 적용된 제품을 구매한 뒤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해 이벤트 페이지에 영수증을 등록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당첨자에게는 특별 제작 굿즈인 '크리스마스 클리커'(500명)를 비롯해 후지필름 인스탁스 미니 에보(1명), 마샬 엠버튼3 블루투스 스피커(1명) 등 다채로운 경품을 증정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클리커는 내부를 열면 돼지바, 구구콘, 찰떡아이스, 티코의 미니어처 모형이 나타나는 형태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프로모션 관련 상세 내용은 롯데웰푸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농심, '볶음너구리' 내년부터 상시 판매

매콤마요 신제품 25일 출시

소비자 성원에 힘입어 한정판으로 돌아왔던 농심 '볶음너구리'가 내년부터 상시 판매 제품으로 정식 전환된다. 농심은 이와 함께 시리즈 첫 파생 신제품을 선보이며 볶음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농심은 지난 10월 27일 한정 수량으로 재출시한 볶음너구리 150만 식이 출시 약 한 달 만에 조기 완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중 정식 판매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연말까지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해 내년부터 상시 공급할 계획이다.

농심은 볶음너구리 정식 출시를 발판 삼아 너구리 브랜드의 영역을 볶음면 카테고리로 본격 확장한다. 첫 번째 신제품으로 오는 25일 용기면 '매콤마요 볶음너구리 큰사발면'을 출시한다. 매운 음식에 마요네즈나 치즈 등을 곁들여 먹는 1020세대의 '모디슈머' 트렌드에서 착안해 기획된 제품이다.

신제품은 할라피뇨를 훈연한 멕시코 식재료 '치폴레'의 매콤한 풍미에 고소한 마요네즈를 조화롭게 배합했다. 너구리 캐릭터 모양의 어묵으로 시각적 재미를 살렸으며, 물을 따라 버리지 않는 전자레인지 조리법을 적용해 꾸덕하고 진한 소스 맛을 구현했다.

한편 볶음너구리는 특유의 오동통한 면발에 매콤한 해물 감칠맛을 더한 제품으로 2017년 출시됐다가 2024년 단종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재출시 요청이 빗발치고 해외 수출용 제품을 역직구하는 현상까지 나타나자, 농심은 지난달 한정 재출시를 단행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친환경 인조잔디 충전재 국내 스포츠 시설 첫 도입

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PHA(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를 적용한 친환경 인조잔디 충전재를 국내 스포츠 시설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CJ제일제당은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KFP) 스타디움에 PHA 기반 인조잔디 충전재 시공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조잔디 충전재는 잔디를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해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핵심 자재다. 기존에는 주로 석유계 합성고무 소재가 쓰였으나,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원선 기자

BBQ, 외국인 몰리며 홍대·명동 매출 급증

홍대 43%·명동 43.7% 증가

제너시스BBQ 그룹이 올해 1~3분기 서울 주요 관광 상권인 홍대와 명동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43.7%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적 호조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 소비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한 15조 9416억 원을 기록했다.

BBQ는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 관광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며 내점(홀) 고객을 적극 유치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장에서 치킨과 다양한 K-푸드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접점을 넓힌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방문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메뉴 3종은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치킨 ▲필크런치로 집계됐다.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과 한국식 양념치킨에 더해, 간장 소스와 찹쌀현미 플레이크 등으로 식감을 살린 필크런치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이드 메뉴 중에서는 떡볶이, 치즈볼, 뿌치킹 감자튀김이 판매량 상위 3개 품목에 올랐다.

BBQ 관계자는 "핵심 상권 중심의 대형 매장 확대 전략이 K-치킨에 대한 글로벌 수요와 맞물려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화면 밖 나온 이커머스… 뷰티 매장·팝업 경쟁

무신사, 성수에 단독매장 열어 향수 조합, 브랜드 팝업존 마련

컬리, DDP서 '컬리뷰티페스타' 45개 브랜드 참여, 1.4만명 방문

지그재그, 이동형 팝업 '핑크카' 12개 브랜드 체험으로 유입 유도



무신사 뷰티 성수 매장 2층 무신사 뷰티 브랜드 랭킹 존에서 고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무신사

이커머스 업계가 뷰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 내 할인전과 전문관 운영을 강화하는 데 이어 오프라인 매장과 체험 행사까지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직접 써보고 구매하는 뷰티 소비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잇따라 뷰티 전문 매장과 행사를 선보이며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에서 구축한 고객 기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직접 체험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스킨케어 소비 수준이 높은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올해 한국의 1인당 스킨케어 지출액을 약 131.87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약 9~10달러의 10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이커머스 매출 비중은 2019년 39.1%에서 2024년 60.8%로 높아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프라인 진출이다. 이커머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의 한계를 넘어 소비자들이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 11일 서울 성수동에 두 번째 뷰티 단독 매장인 '무신사 뷰티 성수'를 열었다. 약 400평 규모 매장에 700여 개 브랜드, 1만여 개 상품을 들였으며 입점 브랜드의 약 80%를 인디 브랜드로 채웠다. 향수 520여 개를 모은 전용 공간과 향수 조합 체험존, 브랜드 팝업존 등 체험 공간을 강화했다. 2층에는 피부 고민에 따른 상담과 상품 추천을 제공하는 뷰티 전문 약국도 입점시켰다. 단순 판매보다 신생 브랜드를 발견하고 직접 써보는 공간에 무게를 둔 것이다.

초기 성과도 두드러진다. 개점 첫 5일간 방문객 3만3000명, 거래액 5억원을 기록했다. 구매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은 65%, 20~30대 비중은 70%를 넘었다. 방문객의 31%는 무신사 스탠다드 등 성수 일대 다른 무신사 매장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패션 고객을 뷰티 매장으로 유도하는 교차 방문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컬리는 지난 12~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컬리뷰티페스타 2026'을 열었다. 45개 브랜드가 참여한 행사에 1만4000명이 방문했고, 참여 브랜드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470% 늘었다. 아침·낮·저녁·밤으로 전시 공간을 나눠 뷰티 루틴에 따라 제품을 살피도록 하고 피부·모발 진단과 눈동자 색상에 맞춘 메이크업 추천 등 체험을 제공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방식을 실제 일상 동선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 QR코드 쿠폰을 지급하고 온라인에서 5600여 개 제품을 최대 90% 할인한 결과, 온라인 기획전 거래액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그재그는 지난달 성수동 주요 상권을 순회하는 이동형 팝업 '핑크카'를 운영했다. 12개 브랜드의 신제품을 체험하도록 하고 앱 가입·브랜드 즐겨찾기 인증에 경품을 제공해 플랫폼 유입을 유도했다. W컨셉은 이달 초 호주 멜버른 한류박람회에서 12개 K뷰티 브랜드를 선보였다. 현지 팝업에 글로벌몰 QR코드를 배치해 온라인 재구매를 유도했다. W컨셉 글로벌몰의 올해 상반기 호주 스킨케어 매출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점도 현지 시장 공략의 배경이다. G마켓도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레디영 약국'과 협업해 현장 고객이 글로벌몰에서 다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내부에서도 경쟁은 치열하다. 할인 중심의 판촉을 넘어 전문 상품군과 자체 큐레이션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애경산업 '원씽'

건조·민감해진 피부 병풀 크림으로 진정



애경산업 브랜드 '원씽'(ONE THING)이 외부 환경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위한 '병풀 수딩 인텐시브 밤 크림'(사진)을 출시했다.

원씽 병풀 수딩 인텐시브 밤 크림은 찬바람과 급격한 온도 변화, 실내 난방 등으로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건조해지는 계절적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외부 자극으로 붉어짐과 거칠어짐이 나타나는 이른바 '스킨 번아웃' 고민에 대응해 피부 진정과 보습을 함께 케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세경 기자

패션그룹형지

선제 겨울 대비 통했다 전국 매장 매출 46%↑

패션그룹형지가 전국 매장에 겨울 신상품을 선제적으로 대량 공급한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크로커다일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하슬러 등 주요 브랜드의 겨울 신상품을 전국 800여 개 매장에 조기 집중 배치한 이후 2주간 전국 매장 신상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말 매출은 전년 대비 최대 130% 증가했다.

이번 매출 상승은 각 브랜드가 시즌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겨울 'PICK(픽)' 라인이 주도했다. 디자인과 실용성,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겨울 PICK 라인은 출고 2주 만에 초기 물량의 33%가 판매됐다. PICK 라인의 아우터 및 시그니처 아이템 판매가 전체 매장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김서현 기자

CJ올리브영 "스킨케어 다음은 'K-색조' 열풍"

오는 20일 '컬러 그라운드 홍대' 선봬
총 4개 층, 영업면적 174평 규모
트렌드 주도·외국인 관광객 '집중'



CJ올리브영 '컬러 그라운드 홍대 외관 렌더링 이미지.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스킨케어에 이은 K-뷰티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K-색조'를 낙점하고, 국내 색조 시장의 저변 확대와 브랜드 성장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올리브영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색조 특화 매장 '컬러 그라운드 홍대'를 연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이 특정 상품군(카테고리)을 전면에 내세운 특화 매장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리브영은 K-뷰티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색조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봤다. 그간 K-뷰티가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입지를 넓혀 왔다면, 국내 브랜드의 성장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색조로 영역을 확장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올리브영은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 트렌드 선도층과 방한 외국인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컬러 그라운드 홍대'는 이 같은 K-색조 확산 전략을 구체화한 첫 무대다. 총 4개 층, 영업면적 174평 규모로 선보이는 이번 매장은 상권과 고객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해 온 올리브영의 매장 혁신 전략을 잇는다.

올리브영이 홍대를 낙점한 이유는 국내 젊은 고객이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의 K-뷰티 쇼핑 수요가 집중되는 상권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10월 홍대 지역 올리브영 매장의 1020세대 고객 매출 비중은 절반을 넘었고, 외국인 고객 매출 비중은 84%에 달했다.

매장 기획은 뷰티 대리급 '영(Young) MD'들이 주도해 고객이 브랜드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제품을 비교하고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색조 놀이터'로 매장을 꾸몄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글로벌 고객이 열광하는 '글래스 스킨(Glass Skin)'은 스킨케어뿐 아니라 자연스럽고 섬세한 피부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K-색조가 더해질 때 완성된다"라며, "K-색조의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가고, 국내 유망 브랜드와 함께 K-뷰티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위탁생산 수주 송도 1공장 '첫 결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제품명과 수주 규모 등은 고객사와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건설한 제1공장에서 생산할 첫 대규모 상업생산 수주다. 특히, 공장 준공을 앞두고 글로벌 제약사를 상업생산 파트너로 확보하며, 공정 기술력과 사업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측은 평가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의 주요 제품에 대해 임상용 원료의약품 생산부터 완제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제품 생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송도 제1공장 준공 이후 초기 가동에 필요한 상업생산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세경 기자

동아ST-메타비아, 비만신약 효과 공개

美비만학회서 전임상 연구 결과 발표
DA-1726, 혈당·체중 감소 효과 보여

동아에스티와 메타비아(MetaVia)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비만학회 'ObesityWeek 2026'에서 비만 및 대사이상 관련 치료제 후보물질 DA-1726과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레타트루타이드(Retatrutide)를 직접 비교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 및 대사이상 관련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 억제, 인슐린 분비 촉진,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을 통해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레타트루타이드는 GLP-1, GIP, 글루카곤 수용체에 작용하는 삼중 작용제다.

이번 연구는 식이유도비만(DIO) 마우스를 대상으로 DA-1726과 레타트루타이드의 체중 감소, 음식 섭취량, 혈당 및 지질대사 개선 효과, 열 발생 관련 유전자 발현 등을 직접 비교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 DA-1726은 레타트루타이드 대비 더 큰 혈당 감소 효과를 나타냈으며, 음식 섭취량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유사한 수준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허쥬마', 브라질 정부 입찰 수주

2027년 말까지 100만 바이알 공급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가 중남미 최대 제약 시장인 브라질에서 연방정부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허쥬마는 출시 이듬해인 2020년 첫 수주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7년 연속 브라질 연방정부 입찰에 낙찰됐다.

이번 수주로 셀트리온 브라질 법인은 2027년 말까지 약 100만 바이알(vial) 규모의 허쥬마를 단독으로 공급하게 됐다. 특히 해당 입찰은 브라질 트라스투주맙 공립 시장에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셀트리온은 확고한 시장 입지와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모두 확보할 전망이다.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크게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공립 시장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선정하는 사립 시장으로 구분되며, 공립 및 사립 시장은 약 8대 2 비중으로 형성돼 있다. 셀트리온 브라질 법인은 이러한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판 전략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핵심 채널인 공립 시장에서 꾸준히 수주 성과를 거두며 입지를 강화해왔다.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역량 역시 이번 수주를 이끈 주요 경쟁력으로 꼽힌다. 셀트리온은 단일 국가에 100만 바이알에 달하는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세경 기자



조금 더. 해보고 싶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조금 더. 좋아지고 싶어
조금 더. 도전하고 싶어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

아직도
이 작은 마음에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오늘도 조금 더”

We Do Technology | SK hynix

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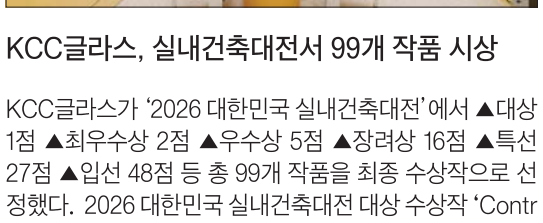
쿠팡, 의료 사각지대 찾아 건강검진 나서

쿠팡이 찾아가는 건강검진 '쿠팡 온동네 케어'를 통해 충남 금산군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4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도 누적 3100명을 넘어섰다. 충남 금산군에서 열린 '쿠팡 온동네 케어'에서 문정우 금산군수, 장영철 쿠팡 사회공헌실 전무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팡



BNK투자증권, 발달장애인 금융교육·건강 지원

BNK투자증권이 지역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했다. BNK투자증권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BNK금융



KCC글라스, 실내건축대전서 99개 작품 시상

KCC글라스가 '2026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에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6점 ▲특선 27점 ▲입선 48점 등 총 99개 작품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2026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대상 수상작 'Controlled Frictional Architecture; 공공주방'. /KCC글라스



아모레퍼시픽,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 선포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고 임직원의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와 김진봉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관련업무 담당 임원들이 16일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세계본사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 선포식'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창작 뮤지컬 무대 마련

서울 청소년들이 직접 연기와 연출을 맡아 완성한 창작 뮤지컬 무대를 관객 앞에 선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8일과 19일 서울 구로구 구로창의아트홀에서 청소년극단 뮤지컬 발표회 '우리 함께 무대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사업 '새꿈더하기(+)'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올해 2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과 우리금융미래재단, 굿네이버스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SK이노베이션, AI로 사회문제 해결할 스타트업 키운다

AI 우수 스타트업 3곳 선정
사업화,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

SK이노베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스타트업 3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기술 실증을 마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AI 임팩트 솔루션 데이 2026'을 개최하고 우수 스타트업 3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I 임팩트 솔루션'은 에너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AI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K이노베이션이 주최·후원하고 재단법인 큐네스티가 주관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186개 팀이 신청했으며, 지난 7월 선발된 10개 팀이 약 4개월간 기술 검증과 전문가 멘토링을 거쳤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참여팀을 대상으로 부트캠프를 열고 개념검증(PoC) 실행 계획과 사업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SVC Seoul에서 열린 'AI 임팩트 솔루션 데이 2026'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당시 AI·기술 분야 멘토링에는 국내 AI 전문가들과 SK이노베이션 AX단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계획했다.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에서도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해 참여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했다.

대상은 특수학급 교사의 기록·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한 '피어링'이 차지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카드를 스마트폰에 태그해 학생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AI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안하는 기술이다.

최우수상은 운수사의 에너지 절감과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의 대기시간 단축을 돕는 AI 배차·경로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한 '샘튼'이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포스트얼라인'은 임상시험과 유사 사례를 분석해 희귀암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선보였다.

SK이노베이션은 수상팀에 후속 사업화와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실행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본선 진출팀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선정 지원과 임팩트 투자자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 및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추가 실증과 사업 협력 기회도 모색한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적용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 올레드 TV, 유럽 7개국서 성능 입증

화면 크기별 평가서 전 부문 석권
화질·음질 경쟁력 인정받아

LG전자 올레드 TV가 유럽 주요 7개국 소비자매체의 성능 평가에서 화면 크기별 27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화질과 음질 등 주요 성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유럽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LG전자는 17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7개국 소비자매체가 최근 발표한 TV 성능 평가에서 42형부터 65형까지 모든 화면 크기의 27개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국 소비자매체 '위치?(Which?)'는 'LG 올레드 에보 C6'를 42형과 48형, 55형, 65형 등 모든 크기에서 1위로 선정했다. 특히 화면 반사율과 4K HDR·시야각 항목에서는 평가 대상 TV 410개 가운데 최고점을 기록했다.

벨기에 소비자매체 '테스트-아앙코프'는 'LG 올레드 에보 G6' 65형 제품에 최고점을 부여하고 '테스트 최고' 등급으로 선정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소비자매체도 해당 제품을 65형 부문 최고 제품으로 평가했다.

소형 TV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LG 올레드 에보 C6는 유럽 7개국의 42형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자체 발광 방식의 올레드 패널은 화면 크기가 작아져도 높은 명암비와 색재현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LG 올레드 에보 G6'의 라이프스타일 컷 이미지. /LG전자

이번 평가에서는 화질과 음질 외에도 색재현력, 화면 반사율, 시야각 등이 주요 강점으로 꼽혔다. LG전자는 올해 출시한 '2026년형 LG 올레드 에보'에 최신 AI 프로세서와 빛 반사를 줄이는 기술을 결합한 '하이퍼 래디언트 컬러'를 적용했다.

유럽은 전 세계 OLED TV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2분기 유럽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51.8%로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OLED TV 시장 점유율도 52.2%로 과반을 차지했다.

전체 TV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OLED TV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옴디아는 올해 글로벌 OLED TV 출하량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69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차현정 기자

인 사 ◆**지식재산처** ◇부이사관 승진△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장 윤기웅△국제협력과장 이승관△유기화학심사과장 최인선△특허심판원 심판장 전범재△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이선우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법무민원팀장 이은정 △지능정보화팀장 이선희 △인공지능통계혁신과장 신우람

부 음 ▲최원숙씨 별세, 조연국·연기씨 모친상, 윤화순·최은주·장혜진씨 시모상, 조재학·재경·재영·재윤·재완(뉴시스 정치부 기자)·재현씨 조모상=마산의료원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20분, 장지 창원상복공원. 055-249-1000.

▲ 신영호(향년 94세)씨 별세, 웅길·승길·문길(시사캐스트 부사장)씨 부친상, 안교을·김미숙·김현실씨 시부상 = 16일, 삼육서울병원추모관 2호실, 발인 18일 오전 1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화장)·서울현충원. 02-2215-4444.

▲이홍세씨 별세, 이종혁(진천군 자치행정국장)씨 부친상=16일, 진천장례식장 102호, 발인 18일 오전 8시. 043-532-4404

한국앤컴퍼니그룹, 임직원 주도 AI 혁신

사내 AI 개발 경진대회 개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주도해온 디지털전환(DX)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등 그룹 차원의 AI 전환(AX)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AI 바이브코딩 해커톤 2026 : 더 세컨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3팀과 우수상 4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기존 사내 BI 경진대회가 데이터 분석과 대시보드 활용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임직원들이 현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일 열린 본선에는 그룹 임직원 24개 팀, 4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구글의 AI 개발 도구 '안티그래비티'와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3 아르곤'을 활용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했다.

최우수상은 타이어 디자인, 차량 가속도 분석, 품질·제조 디지털 트윈 등 3개 과제에 돌아갔다. 마케팅본부의 'D-AI'팀은 타이어 디자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비교할 수 있는 '타이어 디자인 모델러'를 개발했다. 연구개발혁신본부 '로드트윈'팀은 도로 환경에 따른 차량 가속도 분석 도구를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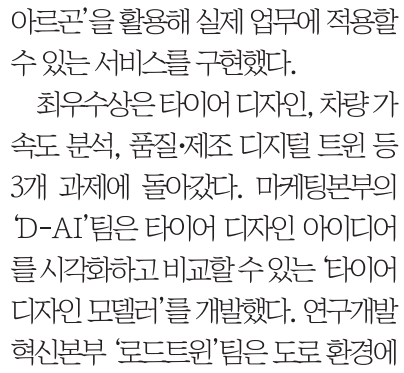
한국GM, 조직 내 다양성 확대 논의

제3회 한국다양성포럼 개최

한국GM이 산업계·학계·공공기관과 함께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GM은 지난 16일 인천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한국다양성협의체(KDC)와 공동으로 제3회 한국다양성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한국 사회, 보이지 않는 차이를 성과(몰입과 혁신)로 만들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포스코이앤씨와 서울대학교 등 산업계·학계·공공기관 관계자 및 한국GM 임직원 약 150명이 참석해 조직 내 다양성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실천하는 다양성 네트워크(DiA),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이 각 조직의 다양성 실천 사례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관련 도서와 영화 전시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인천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진행된 '제3회 한국다양성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한국GM

/양성운 기자



에스앤마일즈가 선택받는 이유

철강·금속 산업 전문성
산업 특성을 이해한 전문 노하우로
최적의 출장·행사 서비스 제공.

해외 네트워크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일정 설계
목적과 예산에 맞춘 최적의 일정과
프로그램 설계

24시간 지원 서비스
현지 긴급 지원 및 상담 서비스로
안심 비즈니스 지원

현지 운영 지원
숙련된 현지 운영팀이 행사 전 과정
원활하게 관리

기업 맞춤 인센티브 투어

목적과 예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 골프 행사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골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사 사은 행사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
로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해외 워크숍·세미나
항공·호텔·회의·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기획 → 항공 → 호텔 → 현지 운영 → 귀국
ONE STOP 서비스!

2026~27 글로벌 산업 전시회

항공 + 호텔 + 여행자보험 패키지로 편리하게!



01
세계 밸브 산업의 중심
VALVE WORLD EXPO 2026

VALVE WORLD EXPO DÜSSELDORF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6. 12. 01(화)~12. 03(목)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215만원~
3박 4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2
금속 용접 / 절단 기술 전시회
URBAN STEEL EXPO 2027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4. 20(화)~04. 23(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03
주조 / 열처리 / 야금 / 캐스팅
금속분야 최대 국제 전시회
GMTN 2027

GIFA METEC THERM PROCESS NEWCAST
뒤셀도르프(Düsseldorf) · 독일
2027. 06. 21(월)~06. 25(금)
Messe Düsseldorf
Exhibition Centre
1인 350만원~
5박 7일 기준 / 조건에 따라 변동

상기 요금은 기준 출발일 및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항공·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실제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Miles 기업전문 여행사
기업 출장 · 인센티브 · MICE **S&Miles와 상담하세요!**
맞춤 기획서 · 견적 무료 컨설팅!
02-3487-2800
smkang@snmiles.com
www.snmiles.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에스앤마일즈 여행사

일본에는 회전문이 없다?



김 양 팽 의
일본 이야기

몇 년 전 호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였다. 필자는 호텔 입구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낯설다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회전문 앞에 섰는데 왠지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워 가만히 바라보니, 회전문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니 낯설게 느껴진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인지, 아니면 차량 통행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혼자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당장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 "다음에 일본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라고 짧은 추리는 마무리되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북반구에 있으나, 차량 통행 방법은 한국과는 다르니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업무차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회전 방향을 확인하려 했던 회전문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짧은 일정이었기에 방문 기관이 많지도 않아 그러려니 생각하고 나의 궁금증은 다음에 해결하기로 했다. 그렇게 잊고 살다 의외의 곳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것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 필자는 OTT를 통해 가끔 일본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일본판으로 제작된 것을 발견했다. 워낙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안겨 준 드라마였기에 일본판은 어떻게 각색되었을까? 라는 호기심으로 자연스럽게 시청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판과 결정적으로 다른 장면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지만 필자에게는 '유레카'를 외칠 정도의 사건이었다.

한국판에서는 주인공인 우영우가 회전문 앞에서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일본판에서는 주인공인 미나미다미나미(南田南)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어 리듬을 타고 진입하면 된다는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남자 주인공의 대사는 한국판과 일본판이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회전문과 에스컬레이터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며 어색함을 느끼게 하였고, 드라마의 몰입도를 떨어뜨렸다. 아니 '일본에 회전문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각색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드디어 나의 오래된 궁금증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의외로 답은 간단했다. 일본 회전문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섞여 있다고 한다. 회전 방향은 차량 통행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정해진 규칙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다. 그보다 일본에서 회전문을 찾기 어려웠던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다. 2004년 3월 오사카에서 엄마와 함께 도쿄를 방문한 6세 남자아이가 롯폰기힐스 모리타워 정문 회전문에서 엄마보다 앞서 뛰어 들어가다 머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문을 멈추는 센서가 높이 135cm 이상인 물체에 반응하도록 높게 조정되어 있어 키가 작은 아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고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는 회전문이 유행이라 한때 도쿄에는 자동 회전문이 최소 260개 이상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 전국의 회전문이 철거되거나 일반 문으로 바뀌었고 새 건물에서도 회전문을 잘 쓰지 않게 된 것이다.

드라마에서 회전문이 아닌 에스컬레이터가 등장한 것도 어쩌면 이러한 일본의 사정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순히 낯섦에서 시작된 사소한 궁금증을 해결하려다 알게 된 슬픈 사연에 두 아이의 아빠로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온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AI 혁신 외치는 게임업계, 이용자 정보는 누가 지키나



기자 수첩
최 빛 나
〈IT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실행한 공식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용자의 PC를 위협했다. 최근 발생한 '승리의 여신: 니케' 보안 사고는 게임업계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인공지능(AI)을 앞세워 개발 혁신과 비용 절감을 외치는 게임사들이 정작 이용자와 핵심 정보를 지킬 준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이달 초 시프트업이 개발한 '니케'의 PC 런처에서 악성 프로그램이 유포된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사 레벨인피니트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외부 공격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의 스크립트 파일을 변조했고, 10월 30일부터 악성 프로그램이 배포됐다. 운영사는 지난 4일 이상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섰다.

이용자가 신뢰한 공식 배포 경로가 공격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게임뿐 아니라 퍼블리셔와 외부 솔루션까지 연결된 서비스 구조에서 어느 한 곳의 보안 허점도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보안 위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넷마블에서는 PC 게임 포털 회원 약 61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최근 국내 인디게임 'TBH: 태스크바 히어로'도 외부 게임 서버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으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대형 게임사부터 중소 개발사까지 보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물론 이들 사고가 AI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AI가 공격과 방어 양쪽에 활용되는 시대에 기존 보안 체계의 허점마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게임사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는 정보 유출이다. 개발자가 외부 생성형 AI에 미공개 신작의 소스코드나 기획서를 입력한다면 기업의 핵심 자산이 외부 서비스로 전달될 수 있다. AI 개발 도구를 사칭한 악성코드까지 등장하면서 개발 환경 자체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게임업계가 AI를 이야기할 때마다 앞세우는 것은 개발 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다. 정작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되는 정보는 어떻게 통제하는지,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은 누가 검증하는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AI 도입을 멈추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혁신만큼 보안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게임을 믿고 개인정보와 시간, 돈을 맡긴다.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은 기술 혁신보다 앞서야 할 기본이다. AI로 게임을 더 빨리 만드는 것은 경쟁력이다. 그러나 이용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자격이다. 게임업계가 증명해야 할 것은 AI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책임질 능력이다.

/vitn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8일 (음 10월 10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어려움을 이겨낼 굳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60년생**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세요. **72년생** 성실한 사람과 사귀어 마음에 악을 지워야 합니다. **84년생** 여행도중에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49년생 큰 금전 거래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세요. **61년생** 사람들과 재물들이 모여들어 번성할 길한 운입니다. **73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85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아 힘들어집니다.

50년생 바른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62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74년생** 바른 마음을 유지하세요. **86년생** 재물이 모인다고 해서 독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51년생 목적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63년생**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75년생** 귀인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87년생** 집안에 경사가 생깁니다.

52년생 항상 겸손하세요. **64년생** 동남방이 길한 방향입니다. **76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88년생** 현재 방식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고쳐보세요.

53년생 마음을 비우고 행동하면 길합니다. **65년생** 아랫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7년생** 좋은 운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89년생** 초조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54년생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세요. **66년생** 주변과 호흡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잘 풀립니다. **78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90년생**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5년생 옛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67년생** 매우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79년생**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91년생** 동료와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습니다.

56년생 건강에 대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68년생** 과음은 금물입니다. **80년생** 돈은 들어오나 반흉반길입니다. **92년생** 옳은 일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57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중개인을 통하세요. **69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81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93년생** 이성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8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합니다. **70년생**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82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94년생** 대지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부니 만물이 번창할 것입니다.

59년생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71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3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95년생** 교통사고를 주의하세요.



김상회의 四季

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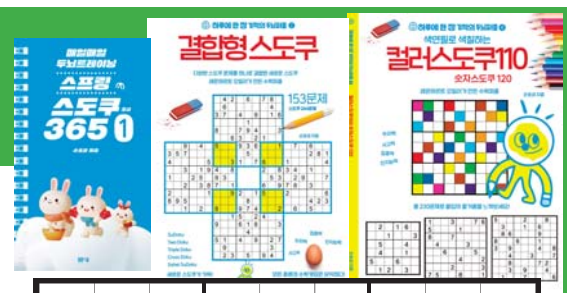
호신(護身)은 뜻 그대로 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Sound body, sound mind)이라는 서양 속담도 있듯이 특히 현대에 와서는 신체만의 건강이 아닌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올라간다. 우리에게 그리 익숙한 이름의 황제는 아니지만, AD 117년부터 138년까지의 로마 제국의 제14대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 때 시민들은 날마다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결투를 보면서,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결투는 실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경기였지만 시민들은 운동으로 다져진 멋진 검투사들의 몸에 더 열광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은 몸짱이 되기 위해 팔과 배 근육을 키워 서로 누가 더 멋진가 자랑하는 일이 유행이었다는데, 미래를 위해 학문을 연구하고 책을 읽는 것보다 몸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그 당시에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시인 유베날리스는 로마 젊은이들의 이런 모습을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시에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까지 깃든다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글귀를 넣었다. 몸에만 집중하는 세태를 꼬집은 것이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결부 짓는 일 외에도 고대로부터 여러 민족은 호신에 관한 전통적인 믿음들이 있어 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에 작은 하마상을 넣곤 했는데 이는 새끼를 지킬 때 드러나는 하마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승 세계에서 망자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란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호신용 부적은 물론 상징으로 매와 호랑이를 그려 넣은 부적을 베갯속이나 몸에 지니고 문설주나 안방 방문 위 등등의 보이는 곳에도 부착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삿되고 위험한 기운을 방어하는 목적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2	7	1	9		5
		1				4		
9								
6				8	9	2	3	
	7	9	5	3				4
								9
		5				6		
3		6	9	2	4		5	

5				8	9			3
			1	5				
		4			7	9		
8		3					5	
7	2						9	4
	1					2		7
		1	7			6		
				1	5			
2			8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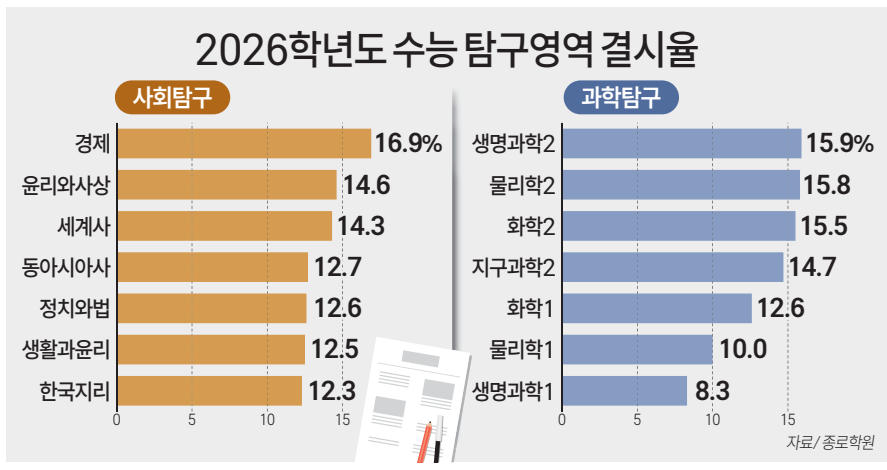
8	5	7	4	2	9	6	1	3
2	4	6	7	1	3	5	9	8
9	1	3	5	6	8	9	4	7
7	3	2	9	8	1	4	5	6
6	9	5	2	4	7	8	3	1
4	8	1	6	3	5	7	2	9
1	6	8	3	7	4	2	9	5
3	7	4	8	9	6	1	5	2
5	2	9	1	5	2	3	6	4

1	7	5	6	4	8	9	3	2
9	4	3	5	1	2	7	8	6
8	2	6	3	9	7	1	5	4
4	3	2	8	6	9	5	1	7
6	9	1	2	4	5	8	7	3
7	5	8	1	3	6	4	2	9
3	1	4	9	8	6	2	7	5
2	6	9	7	2	3	8	4	1
5	8	7	4	2	9	6	1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수능 사탐런에 결시율 변수까지… 성적 예측 어려워진다

사탐런에 과탐 접수건 28% 감소
탐구영역 과목별 결시율 편차 커져
등급 불확실성에 유불리 주의해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교시 탐구영역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결시율 편차에 '사탐런' 현상까지 맞물리며 과목 간 유불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응시 기반이 줄어든 과학탐구는 실제 응시 규모와 성적 분포에 따라 등급 경계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들의 성적 예측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결시율이 가장 높았던 과목은 경제(16.9%)로 나타났다. 이어 윤리와사상 14.6%, 세계사 14.3%, 동아시아사 12.7%, 정치와법 12.6%, 생활과윤리 12.5%, 한국지리 12.3%, 세계지리 10.4%, 사회문화 9.0% 순이었다.

과학탐구에서는 Ⅱ과목을 중심으로 결시율이 높았다. 생명과학Ⅱ가 15.9%로 가장 높았고, 물리학Ⅱ 15.8%, 화학Ⅱ 15.5%, 지구과학Ⅱ 14.7%였다. Ⅰ과목은 화학Ⅰ 12.6%, 물리학Ⅰ 10.0%, 생명과학Ⅰ 8.3%, 지구과학Ⅰ 7.5%로 집계됐다. 탐구영역은 사회문화·세계지리·물리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등 5개 과목을 제외한 12개 과목의 결시율이 국어(10.5%), 수학(9.6%), 영어(9.9%)보다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사탐런에 따른 응시자 구성 변화까지 겹치면서 탐구 과목별 성적 예측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수능 사회탐구 과목별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11.4%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는 28.3% 감소했다.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현상이 확대되면서 과학탐구의 응시자 기반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결시율이 높았던 과목들은 올해 수능에서도 상대적으로 접수 인원이 적었다. 사회탐구에서는 경제 선택 인원이 8360명으로 가장 적었고, 동아시아사 2만 2524명, 세계사 2만3536명, 정치와법 3만 1859명 순이었다. 이들 4개 과목은 지난해 수능에서 모두 12% 이상의 결시율을 기록했다.

과학탐구는 화학Ⅱ 선택 인원이 453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지구과학Ⅱ 4632명, 물리학Ⅱ 5799명, 생명과학Ⅱ 7075명이었다. 지난해 모두 14% 이상의 결시율을 기록한 과목들이다. 특히 접수 인원이 5000명에 못 미치는 화학Ⅱ와 지구과학Ⅱ는 지난해 수준의 결시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실제 응시자가 각각 3800명대와 3900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

응시자 규모가 작은 과목은 일부 수험생의 점수 변화가 등급컷 및 표준점수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과목별 접수 인원뿐 아니라 결시자를 제외한 실제 응시자 규모와 점수 분포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응시자가 적은 과목은 실제 응시 인원과 성적 분포에 따라 등급 및 표준점수 형성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과목 간 유불리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탐구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한 자연계열 수험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수능 직후 가채점 결과만으로 탐구영역 등급을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탐구영역은 과목별 응시자 구성과 점수 분포에 따라 실제 채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가채점 점수만으로 등급이나 표준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 대표는 "탐구영역은 수능 직후 가채점 결과만으로 성적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 성적이 발표될 때까지 등급과 표준점수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은 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학교 적응 도와드려요" 전환기 특강 운영

서울교육청, 예비 초중고 학부모 교육
온·오프라인으로 학습환경·진로 설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 전환을 앞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습 설계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8일과 20일 '전환기 대비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7학년도 초·중·고 신입생 학부모와 전환기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면 교육은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1층 대강당에서 열고, 비대면 교육은 서울시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18일에는 배우 정은표가 '가정과 학습,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주제로 대면 강연에 나선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20일 온라인 강연은 한양대 조병영 국어교육과 교수가 맡는다. 조 교수는 '잘 읽는 아이가 잘 배운다: 전환기 독서의 혜택'을 주제로 독서와 학습의 관계를 다룬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과 자녀의 진로·학업 설계 방법을 설명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학습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가정에서도 진학 이후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서울대, UAE와 차세대 '국제 리더' 양성

국제 리더십 교육·연구 협력 체결
두바이 리더십 연구 공동진행 등

서울대학교가 아랍에미리트(UAE)의 고위급 공공 리더십 교육기관과 손잡고 현지 관료 교육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두바이의 행정 혁신 사례를 연구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연구 성과를 해외 대학과 학계에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서울대가 UAE 모하메드 빈 라시드 리더십 센터(MBRCLD)와 국제 리더십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MBRCLD는 UAE 총리실 직속 리더십 전문 교육기관이다. 정부와 공공·민간 분야의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고, 국가 전략 수립에 필요한 고위직 역량 강화와 국제 공동연구 등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 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양국 간 교육 협력의 일환이다.

서울대와 MBRCLD는 두바이의 행정 운영체계와 혁신 사례를 분석하는 '두바이 리더십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UAE의 국가 운영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리더십 및 행정 경험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연구 결과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최고경영자·고위공직자 대상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UAE의 핵심 관료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공공정책과 리더십 분야의 교육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교육기관과 학계에도 공유한다. 교육부는 공동 연구 결과물을 세계 90개국 500여 개 대학원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대 김준기 기획부총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전환기 속 복잡한 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차세대 국제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대학서 만든 미래자동차·로봇 한자리에

오늘부터 나흘간 '2026 코-쇼' 개최
인공지능 등 18개 분야 67개 대학 참여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기술 역량을 겨루는 행사가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늘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제3회 코-쇼(CO-SHOW)'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CO-SHOW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단 협의회가 주관한다. 대학 간 교육과정과 자원을 공유하는 COSS 사업의 교육 성과를 일반인에게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18개 분야에 걸쳐 전국 6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지능형 로봇 등 18개 첨단분야의 교육 성과를 소개하고, 22개의 대학생 경진대회가 이어진다.

주요 대회로는 AI 모델 개발 경진대회인 'AIM 챌린지', 미래자동차 분야 자율주행 경진대회 'AutoRace2026', 지능형 로봇 제작 경진대회 'SHARE 챌린지' 등이 있다. 웨이퍼 이송 로봇 제작과 4족 보행 로봇 경진대회, 드론 관련 대회 등도 진행한다.

일반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회로 제작과 반도체 제조장비 체험, 레이어드 무드등 만들기를,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보조배터리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국민대

QNX 센터 코리아 설립

국민대학교가 QNX의 개발 환경을 대학 교육과정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모빌리티·로보틱스 실무 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 국민대는 지난 4일 글로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기업 QNX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거점인 'QNX 센터 코리아'를 설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QNX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QNX는 블랙베리 리미티드의 사업부로, 자동차와 의료기기 등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에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국민대는 국내 처음으로 QNX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김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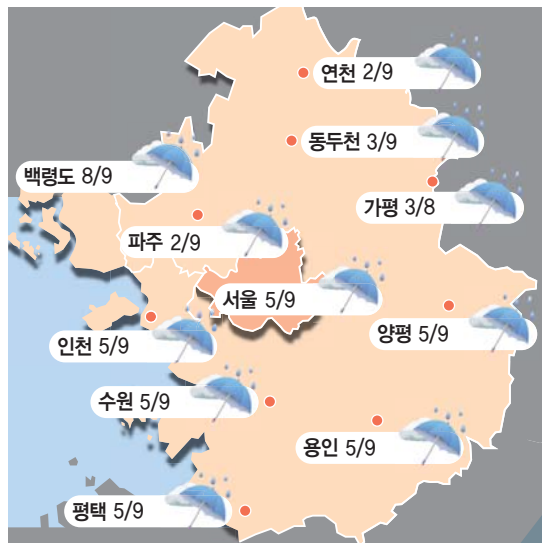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15 | 해짐 / 17:19

11월
18일 (水)
음력 : 10월 10일

수도권 날씨
5 ~ 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미·중·러 정상회담 앞 '젠슨 황 스캔들'…시진핑 정상외교에 '암초' /사진 뉴시스

▲日정부 "러 항공기 추청 항공기 2대 영공 침범, 용납못해…엄중 항의"

▲트럼프 또 띄운 북미회담, 이번엔?…한미 당국 기존입장은 '어렵다'

▲中 검색엔진 바이두 3분기 순익 2800억원…"AI사업 호조 흑자 전환"

▲美민주 경선 유권자 83% "대선후보, AI 업계 선거자금 거부 중요

▲"이란 댐 등 수자원 개발 사업 군사력 증강 목적 추진 가능성"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제6037호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세계 사로잡은
K-푸드
내수 부진에도 선방
L1

Life

화면 밖 나온
이커머스
뷰티 매장·팝업 경쟁
L2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metro · metro경제

AI 도입 넘어 실전 활용까지… 산업별 AX 해법 찾는다

기업 경쟁력, AI 전환에 달려
업종별 특성 반영한 전략 필요
산업 현장 중심 활용 사례 공유
AI 도입 성과·성공 전략 등 논의

기업의 생존은 이제 인공지능 전환(AX)에 달렸다. 일부 선도 기업의 기술 실험에 머물렀던 인공지능(AI)이 최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를 실제 업무와 사업 구조에 녹여내는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은 생산 공정의 효율화가, 금융업은 리스크 관리와 고객 서비스 개선이 주요 과제다. 업종마다 보유한 데이터와 업무 구조가 다른 만큼 AI를 도입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특히 산업별 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공유한다. 올해 포럼의 주제도 기업들의 AX 동향을 살펴보는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다. 산업별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X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포럼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우용 한국SW·AX총연합회장의 축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이어 이경전 경희대 교수(한국AI서비스학회장)가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아 산업별 AI 적용 현황과 향후 방향을 짚는다.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는 'AI 전환의 허와 실'을 통해 기업 AX 과정에서 마주하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조명한다.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은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를 주제로 산업 지형 변화 속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이어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가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랜드'를 통해 기업의 결정적인 성공 사례를 살펴본다.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프리세일즈팀장은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를 주제로 AI 도입이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짚고, 데이터·프로세스·조직 전반의 재설계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 3사를 비롯해 AI 서비스 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업종별 AI 활용 사례와 시행착오가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AX 여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20	축 사	**이우용** 한국SW·ICT 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 교수·한국AI서비스학회장 :업종별 AI / 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
14:50~15:20	강연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AI 전환의 허와 실
15:20~15:50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AI가 이끄는 기술/산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AX)
15:50~16:20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산업현장 AI적용사례와 변화 트렌드
16:20~16:50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프리세일즈팀장(선임팀장)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의 AX의 역할과 의의

이 경 전
경희대 교수·한국AI서비스학회장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과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KAIST 경영대학 조교수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AI 연구와 산업 적용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미국인공지능학회(AAAI)의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네 차례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전자정부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현재 한국AI서비스학회 초대 공동회장으로, 국내 AI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교수는 특히 AI 에이전트와 플랫폼 경제, AI 기반 서비스의 사업화에 주목하며, 인간과 AI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 지 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겸 기업개발실장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응용통계학을 공부했고, 베인앤드컴퍼니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거쳐 뤼튼테크놀로지스에 합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전환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을 ▲명확한 ROI 세팅 ▲AX 가부 판단 ▲보톰 업(Bottom-up)의 함정 ▲데이터 거버넌스 ▲사용자 경험(UX) 등 다섯 가지 사례로 나눠 짚는다.

사내 회의록 앱, 사용자 문의와 환불을 처리하는 CS 에이전트, 재무 데이터 에이전트 등 뤼튼이 직접 만들어 쓰는 사례도 함께 소개한다.

한 영 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담당)은 자연어처리 분야에 뿌리를 둔 AI 기술 전문가다. 미국 타우슨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병역특례 기간 검색엔진 코어 개발을 맡은 경험이 있다. 2017년 LG유플러스에 입사해 AI 스피커와 챗봇 엔진 개발에 참여했다. IPTV AI 검색 서비스 출시를 이끌었으며, 언어기술팀장과 AI기술담당을 거쳐 현재 회사의 AI 연구개발 조직을 총괄하고 있다.

엑사원 기반 통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익시젠(ixi-GEN)'을 선보였고, AI 통화 에이전트 앱 '익시오(ixi-O)'의 온디바이스 음성인식(STT)과 딥보이스 탐지 등 핵심 엔진 개발에도 기여했다.

박 기 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는 AI응용서비스분야 전문가다. 성균관대 산업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MIS) 학위를 받았고, KAIST CAIO 과정(3기)을 수료했다. KT에서 MVNO 사업자를 위한 MVNE 플랫폼 상용화와 KT-삼성 스마트폰 '옴니아' 앱 분야 상용화를 총괄했다.

이후 AI 스피커 '기가지니' 응용서비스플랫폼 개발·운영 PM을 맡았고, KT 사내 AI 고객센터(AICC) 구축과 신한·우리·농협 등 금융권 솔루션 상용화를 수행했다.

현재는 교육·에너지·모빌리티·IoT·AICC 등 5대 사업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 개발·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현 창 호
SKT 엔터프라이즈 프리세일즈 팀장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프리세일즈팀장(선임팀장)은 ICT 분야 25년 경력의 AI·클라우드 전문가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UIUC)에서 컴퓨터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이후 한국IBM에서 IT 컨설팅과 기업 영업을 맡았으며, SK텔레콤에서 기업용 AI·데이터 솔루션을 기획해왔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이미지 분석용 비전 알고리즘을 개발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기업 AX 서비스를 이끌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AI 도입이 곧 생산성 향상은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메트로 한줄뉴스



▲추춘제 대비하는 K리그…영국 동절기 운영 현황 살펴
▲감독·코치 경험한 이승엽, 거취 어떻게 되나… "복귀? 급하지 않다" /사진 뉴시스
▲FA 오태곤, SSG와 동행 이어간다…3년 총액 11억원 계약
▲태극전사, 카타르와 올해 마지막 A매치…손흥민 60호골 재도전
▲LPGA 투어 디 안니카 준우승 최혜진, 세계랭킹 17위→13위
▲'작가 등용문' 신춘문예에도 등장한 AI…허용 범위는?